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21 1981년9월17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September 17, 1981

SEP 22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韓美修交 1백주년맞아 내년 5月을「韓美友好의 달」로 선포예정

學術會·國寶 전시회등 行事 준비

汎僑胞機構 추진

(LA)

내년으로 다가온 한미수교 1백주년을 기념, LA시 당국은 한미수호통상조약체결 만 1백주년이 되는 1982년5월을 한미우호의 달(가칭)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A한국문화원(원장·윤기병)은 LA시 문화국과 인터내셔널클럽과 수차협의를 진행시켜 왔으며 1982년 봄부터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특히 수교의 달인 5월을 「한미우호의 달」로 정하고 기념학술회, 전시회, 예술공연등을 1년동안 진행시킬 계획이다.

LA문화원은 기념행사를 위해 범교포적으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와 유기적 협조로 미국문화단체와도 연관을 가져 한미간의 우호관계를 크게 증진시킬 방침이다.

한미수교기념행사로 LA지역에는 우리나라국보급 미술전시회도 기획되고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사학자를 비롯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전반에서 한미간의 역사적 유대관계와 미래를 다짐하는 기념학술강연회도 열리며 전통민속공연등을 통해 미국사회에 한국문화를 소개한다.

한미수교를 기념키 위해 이미 정부는 김동회 외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민간기구로는 김용식대한적십자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수교1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오렌지카운티 코리언퍼레이드. 농악대들이 한국전통 민속을 선보이고 있다.

「가을만되면 퍼레이드로 마음이 바빠져요」

—사자탈춤 위해 5년째 LA訪問한 허호영옹

◇「퍼레이드」에 선보일 흉겨운 사자탈춤 --한국의 날 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위해 5년째 LA를 방문하는 허호영옹(68)이 이끄는 탈춤놀이-올해는 사자탈춤 송파산대놀이등 20여개의 탈이 출연 퍼레이드를 장식한다. 허옹은 샌님복장을 차려입고 산대놀이 탈춤동작으로 행진을 한다. 익살스런 표정을 한 가면과 장단조의 탈춤이 뒤섞여 낭만적이고 풍자적인 한국풍습을 소개.『가을만 되면 퍼레이드 생각으로 마음이 바빠진다』는 허옹은 해를 거듭할 수록 화려해지는 퍼레이드행사를 볼때마다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대미환율 인상 불가피 내년 달러당 714원으로

(서울15일=연합)한국정부는 내년의 대미공식환율을 달러당 714선에서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것은 현수준 1달러당 687원보다 4%의 「원」의 평가절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82년의 물가상승을 14% 선에서 억제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계산이다.

그러나 대미환율은 년말까지 693원 선으로 상승될 전망이다.

한국정부는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86) 동안에 물가상승을 연평균 10% 선으로 잡고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매년 18% 의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환율인상은 1.8% 선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재무부의 관리들은 15일 밝혔다.

한국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내년에 49억달러의 외환고부족을 겪을 것이며 외채원금과 이자상환이 21억달러에 이르고 외국차관 도입액은 금년보다 3억 달러 증가된 82억달러가 될 것이다.

15일 현재 캐나다 1달러당 572.74원에 거래되고 있다.

부부합창단 탄생
전「콘셀아미」발전적 해체

「더·싱잉·커플스」(The Singing Couples)라는 새 이름의 교민합창단이 탄생했다.

수년전 고 한성진씨가창설 지휘하던 여성음악인들로 구성된「콘셀아미」는 한성진씨의 작고이후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지휘자 김승순씨가 맡아 지휘해 왔다.

꾸준한 연습을 해오던동 합창단은 프로펫셔날리즘의 추구보다는 건전한 교포사회의 육성을위한 아마츄어 음악애호가들의 모임이 시급함을 절감하고금년 1월 혼성합창단으로 성격을 바꾸기로 결의, 해체했다.

이번 신 혼성합창단의단원이 대부분 부부로 구성된데 힌트를얻어 이름을 「더 싱잉 커플스」라고 결정했다 한다.

동 합창단 연락책임자이태영씨(노바스코샤 은행근무)는 이 합창단의 창단취지를"부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음악애호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가정의 화목과 건전함을 실현할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정신을 교포사회와 캐나다사회 전반에 보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1가정으로 구성된 동합창단은 음악가, 사업가, 엔지니어, 경제학박사및 목사가정들로 사회각층 전반에걸친 직업인들이 모여한 층 합창단의 성격을 돋보이고 있다.

동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벧엘교회에서 저녁 9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연습한다. 지휘는 김승순씨, 반주는 이인선씨가 맡아 수고하고 있다.

사대부고 우승
고교대항 배구대회

지난12일(토)다운스뷰멜스·파에서 벌어진 제3회고교대항 배구시합은 사대부고의 우승으로 막을내렸다.

3고교에서 8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가운데 조촐히 거행된 이번대회는 성동고교가 주최하였다.

예상보다 적은 고교들이 참석한 탓도 있겠지만 이번 배구시합은 경기자체보다는 친목위주로 진행된것 같다.

시합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우 승 : 사대부고
준우승 : 대광고교
3 위 : 성동고교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Sports 단상(斷想) ①

— 하키와 프로스포츠 이얘기 저얘기

지난주에는 TV나 신문지상을 통해 스포츠가 만개한 기분이다.

「캐나다컵」하키대회가소련대 캐나다의 결승전을마지막으로 끝이났고, U·S오픈 테니스의 여자, 남자부 결승이 온 시민들을 TV앞에 묶어놓았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지식인의 80%가 신문을 펼칠때 스포츠기사를 먼저읽는다

자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선진국 미국, 캐나다, 일본등지에서는 경제의 한수단으로 또는 국민의 오락용으로 프로스포츠가 이용되고있고,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후진국에서도"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State Amateurism)"이 판을치고 있다.

특히 정치가 경직된 후진국에서는 정치가들이 스포츠를 이용,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

흔히들 캐나다에 사는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남은시간을 무엇에 보내야하나하고 걱정을 다.

한국에서 즐기던 야구구경을 갈래도 선수들의 이름이나 특징도 모르겠고, 게임 방식도 복잡 다단, 어느팀이 어느리그에 속해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북미인들이 즐기는 훗볼(Foot Ball)은 매일 TV화면을 메우지만어떻게 하는것인지, 왜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그래도 많이안다는 아이스 하키만해도 그렇다. 캐나다 선수들이 NHL선수들중 80%라는데, 이들의 3분의 2는 미국팀들에 소속됐으나 이번 「캐나다컵」대회에서는 캐나다팀에서 뛰었다.

프로4대 스포츠의 하나라는 농구는 캐나다TV에서는 별로 찾을수 없다.

필자는 조그만 지식을이용, 이 란에서 스포츠 분야의 이얘기 저얘기를 엮어보려 한다.

소련이 캐나다를 8:1로 물리치고「캐나다컵」을 차지한것은 이미 뉴스를통해 보도된바 있다.

캐나다의 프로선수들이 정식으로 소련과 대전한것은 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와 소련에서 번갈아 개최된 8차의 대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리라 믿던 캐나다는 고전끝에현 미국팀 골리 토니의형 필·에스피지토의 활약으로4승3패1무로 소련을 이겼다.

76년도 제1회 「캐나다컵」대회에서는 소련대신 체코가 결승에올라 캐나다는메이플립스의 시틀러의 결승골로 연장전(Sudden Death)게임에서 5:4로 승리한바 있다.

이후 양국은 국가대항전은 아니었지만 3명의 스웨덴출신 선수를 Y. 전캐나다 선수로 구성된NHL올스타와 소련대표팀간의「챌렌지(Challenge)컵」대회를 79년초 뉴욕에서 개최, 2승1패로 소련팀이 패권을 차지했다.

이번 세계하키 6개강국이 참가한 제2회 캐나다컵하키대회는 알렌·이글손의 독주인상을 주어 많은 하키팬들의 비난도 받았다.

「이글손컵」이라고도 불리운 이대회 창시자 알렌·이글슨은 NHL선수협회장이며 정계의 실력자이기도 하고, 많은 대기업체를 고객으로갖은 변호사이기도 하다.

소련과 캐나다는 실력면에서 다른 4개국보다 우수하기때문에 양국의 경기만 필요하다는 이글손의 주장에대해 현 NHL 선수협회측에서는 현재 NHL에는수많은 미국, 스웨덴, 핀랜드, 체코출신 선수들도 있다면서 캐나다와 소련양국의경기만 개최하는것에 반대했다.

이번 캐나다의 패배로어떤 형태든지 캐나다와 소련의 경기가 곧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4일 몬트리얼 경기에서 체면이 깎인 캐나다 선수들은 트루도수상이 ㅂ푼 캐나다대표팀과의 만찬회에도 웨인·그레츠키, 브츠·피링과 래리·로빈슨의 3명밖에 참석 안했다.

지난 주말의 U·S오픈테니스 얘기는 다음주로 미루기로 한다.

이번주의 중요스포츠 행사는 우선 17일밤 버팔로에서 거행될 필라델피아·이글스와 버팔로·필스의 ABC의 목요훗볼 경기이다.

작년도 NFL준우승팀 필라델피아의 맥발의 키거와 버팔로의 쿼터·배 죠·퀴거슨을 주목해보자.

(유승민 기사)

바이얼리니스트 鄭京和씨
「81年의 卓越한 아시아人」被選
아시아인스티튜트서 10月3日 表彰式

세계적 바이얼리니스트인 정경화양이 오는 10월3일 「81년의 탁월한 아시아인」으로서 표창을 받게된다.

아시아·인스티튜트가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자축행사가 금년은 10월3일 워싱턴 D.C. 하야트·리젠시호텔에서 「1981 GALA」대회를 갖게 되는데 정양은 이모임에서 협회장 케이·슈가하라로 부터 예술분야공로로 표창을 받는다.

아시아계학자, 실업인, 정치인들과 미정계요인들이 참여할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무성의 협찬으로 「미국-아시아의 경제관계정책과 전망」이라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모임에 관심있는 사람은 (202)466-6124로 연락하면 된다.

▲정 경 화씨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B)497-3800
(R)284-9052

Daily News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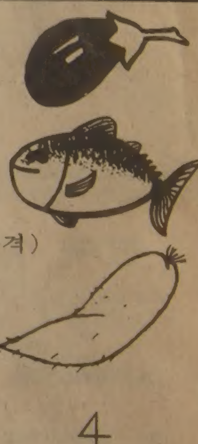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51

서울식품 'BIG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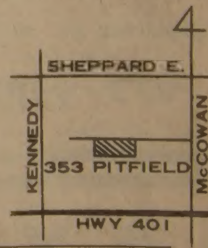
한국 · 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 추, 무, 풋고추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젖	Lb.		80¢(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젖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MSS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가을이 오는江」 한낮엔 수은주가 아직 30도까지 오르지만 가을이 오고있는 것을 숨길수는 없다。 아파트숲을 싸고흐르는漢江엔 요트가 한가로이 떠있고 마을 어린이들이 모래城을 쌓고있다。 따끈따끈 내려쬐는 햇볕속에 곡식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 오는듯하다。

"불교의 북미문학 영향"

문협, 교양강좌, 김스님 강연

캐나다한국문인협회 (회장 박충도)의 교민을위한 공개교양문화강좌가 지난 11일밤 토론토 랜스다운·서브웨이 뒷쪽 삼우스튜디오(관장 장연탁)에서 있었다.

이날 20여명의 청중이모인가운데 김삼우스님(선련사주지)의 「한국불교가 북미문학에 끼친영향—특히 신문학을 중심으로」강연이 두시간여에 걸쳐 있었으며, 불교문학·선시(禪詩)·불교사상 저서등 서적의 즉흥전시를 곁들였다.

강사는 여러명의 미국및 캐나다작가 시인들이 불교적 사상과 선의 영향을입고 있음을 알려주고, 작가소개및 작품성격 해설을하는 한편, 불교정신, 교리등을 간간이 곁들여, 병든시대상, 사회상, 비판과 해탈의 필요성등을 강조했다.

김스님에 따르면 미국의 게리·슈나이더, 알렌·긴스버그, 드와이츠·고다드, 폴·카라스룰비릇, 영국의 제임스·조이스, 알더·학스리, 알람·왓츠, 크리스마스·함프리츠, T·S·엘리옷, 에즈라·파운드, 어네스트·페네로스, R·H·블라이드, 프랑스의 로망·롤랑, 리스·데이비스 부부 독일의 릴케·괴테, 헤르만·헤세, 니체·쇼펜하워, 와그너 선사상의 영향을입은 예술가들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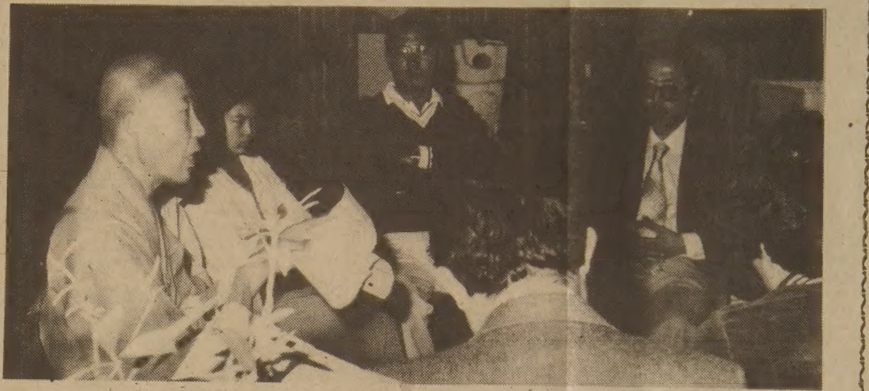
김스님은 불교의 좌선(坐禪)과 가톨릭의 묵상인 피정(避靜)을 비교하여불교의 선을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는 정적인 것이고, 가톨릭의 "피정은 생각이며 의지등 동적 주체성이 가미되는 것이라고풀이했다.

강연후 질의응답에서 강사는 과학기술, 문명등 정신공해에 도전, 살아남기위해 "포기냐? 선택이냐?"의 갈림길에서 시도된 것으로 50년대에는 비트가, 60년대 히티, 70년대 이후에는 커뮤니티운동이 북미에서 반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자기해탈이 있다고 김스님은 강조했다.

특히 김스님은 토론토에서 여러예술가, 저널리스트들과 반문화운동인 컴뮤니티 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불교만이 세계를 평화로 이끌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정치, 경제가들이전쟁만이 인류의 생존위기경제침체를 해결할수 있다는 역설적인 질문에 김스님은 "인류팽창의 위기는 식량남용에서 왔다"며생존을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물질이면 충분하다"고 응답 했다.



◇강연하는 김삼우스님(선련사주지 왼쪽)과 청중

한·가 경제협력위

에너지 자원개발에협력

(서울15일=연합)한국과 캐나다는 15일 자원과 에너지개발및 양국간에 에너지에관한 정보교환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서울여의도의 경제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한·가 경제협력 위원회 회합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양측은 제3국시장의 진출을 목표로 캐나다의 자본과기술, 한국의 숙련된인력자원을 동원하는 가능성에대해 검토 연구키로 했다.

이번합의로 양국은 캐나다에 풍부히 매장된 석탄, 석유, 천연자원, 동, 주석 등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데 상호협력을 촉진시킨다.

또 캐나다측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86)동안에 기계, 금속, 핵에너지, 화학및 공학분야에서 자본및 기술지원을 증대시킬것을 약속했다.

이번 하루동안의 회의를 위해 캐나다측은 한·가 실업인위원회 의장 베실·베네티우가 이끄는 50명의캐나다측 실업인들과 한국측은 호남정유회장 구평회를 대표로하는 120명의 한국측 사업가들이 참가했다.

日의 對韓원조 주요議題로

21일 뉴욕서 열리는 美日양국外相회담서 論議

헤이그國務, "한국에 대한 積極的태도表明촉구"

〈동경—UPI〉 오는 21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일외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원조가 중요외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12일 말했다.

헤이그미국무장관과 소노다일외상간의 이번 회담은 소노다외상의 요청으로 열리는데 유엔총회 참석을 기해 개최된다.

일본은 최근 서울서 열린 한일경제각료회담에서 한국측의 대일60억달러 차관요구를 안보와 결부시켰다는 이유로 거절했었다.

소식통들은 미일외상회담에서 소노다외상은 헤이그국무장관에게 일본은 대한차관문제를 차근차근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은 지금까지 이문제에 관해 어떤 영향력도 행사치 않았는데 이소식통에 의하면 헤이그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태도표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社說

한인회 출범

— 새 회장단에 바란다

때아닌 동면에 잠겼던 토론토한인회— 그 주역으로 나선 박인순 회장단의 의욕찬 출범을 축하하며 아울러 3만 교포 사회의 벅찬 살림을 꾸려나감에 있어 이루어야 할 몇가지 충고를 보낸다.

한동안 열띤 쟁점을 안고 불협화음을 빚던 토론토한인회 분규는 강회장단 사임에 이은 과도운영위원회 구성의 과정을 거쳐, 임시총회에서의 신임 회장단 인준으로 일단락 짓고, 이제 임원진을 갖추어 새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인회는 마비된 기능을 회복하고, 활기를 얻어 정상운영으로 다가섰으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거간의 절차상 앞으로는 반복되어서 안될 몇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첫째, 과도운영위원장단이 현직을 사퇴하지 않은채 한인회장및 부회장으로 출마, 후보등록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절차 도외시의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 무슨 단체이건 규범과 통상사례가 준수되어야 하며, 부정적 측면의 전례를 남겨서는 안될 일이다.

둘째, 단일팀 입후보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하겠다. 과거 강신봉 회장 당시와 강우석 회장때에도 단일팀 출마로 절차상 총회 인준만 거쳐 쉽게 그 중임을 맡았었다.

이번에 또한번 있은 단일팀 출마는 유권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거의 백발백중으로 인준받게 마련이니, 당선된 팀도 강한 중책감보다 그 중임을 경시하기 쉬운 폐단도 없지 않다 하겠다. 열띤 경쟁끝에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팀일수록 책임완수를 위해 그만큼더 열나게뛰는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이다. 보다 유력하고 역량 있으며, 영향력이 큰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출마하여 뜨거운 선거전을 벌이고, 일단 선거결과 당락이 판결나면 다수의사를 존중하여 자기 지지세력을 모아 당선팀에게 계속 적극 협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인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이 가장 바람직한 양상이며, 그같은 풍토조성에 우리 모두는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세째, 회장단 선출을 위한 총회에 유권자의 10분의 1도 못 모인다면, 교포들의 무성의를 탓하기에 앞서 이사회등 당무자들은 대내적 분규, 불신사조 조성, 한인회 자체의 부조리등을 과감히 불식하고, 이미지 쇄신으로 교포사회의 관심과 애착의 대상이 되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그같은 양상들을 충분히 알고 무거운 짐을 자원하여 지고 나선 새 회장단은 비장한 각오와 넘치는 사명감으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고 첫발을 내디뎠을 줄로 안다.

거듭 강조하는 바는, 그 자리가 단순한 명예직이나 행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정녕 교포사회 최하층을 자처하는 봉사직이라는 자각에서 회생적 섬김으로 시종일관한다는 중책감과 넘치는 사명감의 소유자만이 능히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가시발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간의 잡음이야 어떻든 새로운 면모로 진용을 갖춘 회장단은 용약 출발신호를 울렸다. 그동안 잡음이며 구설수가 많았던 한인회의 진통이었으니만큼 교민들은 이번 살림꾼들에 대한 요망과 기대가 큰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슬기롭고 과감하게 소신하는 바 청사진을 펼쳐나가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중의 의의로나 호응면에서 가장 비중 큰 행사로 캐라반 참가— 그것도 문화적 측면에서 차원 높고 농도 짙은 한국미와 정신·전통예술·고도의 경제성장 실상등을 전달·계몽하는 참신한 계획의 실천을 꼽겠다. 불행히도 금년도 전임회장은 이를 불발탄으로 만들고 말았다.

둘째로 연례행사인 미인대회도 올해는 깔아뭉기고 말았다. 이것도 한국미 과시의 값다운 행사이니 신임회장단은 2년의 임기중 이를 부활, 실행에 옮겨주기 바란다.

또 하나 알찬 연례행사로 개천절·한글날 백일장을 꼽을 수 있다. 올해도 이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한인의 날」행사를 한인연합회는 첫해부터 유산시키고, 각지역사회 단위행사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인회는 그같은 의기소침한 태도를 본받지 말고, 보란듯이 이 행사를 치러줄 것을 기대한다.

그밖에 한인사회 로서는 해야할 일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각 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한인총화와 굳은 유대조성및 보다 나은 한인사회 조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으며, 인권침해나 인종차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당국에 강력히 해결책을 요구하는등의 기구도 있어야겠고, 이민사 정립을 위한 "기구결성도 서둘러야 하겠다. 이것은 이민초기의 증인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타계(他界)하여 쓸어들기 전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소중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민인구및 생활실태 파악도 필수과업에 속하는 일이다. 거주상황·직업분포 파악등 생각을 깊이하면 한인회로서 해야할 참신하고 값다운 일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새 한인회는 말썽 없는 단체, 건설적인 일을 실천하는 단체이기를 축원한다.

(단편소설)

상주(喪主) ③

이태준(문협회원)

그녀의 발작은 점점 심해지고, 불과 며칠사이에 중병환자처럼 변해버렸다.

그래본 역사가없는 어머니가 지푸라기를 잡는심정으로 나의의견을 물어왔다.

「이일을 어쩌면 좋겠냐, 이일을!」

「어째기는 어째요. 속히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고향집으로 내려 보내든지 해야지요.」

투박스러운 대답이었다.

「정신병원은 기한이 없다던데, 그돈을 다 어떻게 문다냐?」

「그러면 고향으로라도내려보내 야치요?」

「그것도 안된다 병나니까 내려보낸다고 금방말이 들려올거야」

「그러면 저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글쎄, 그대로 두어서도 안되겠구」

성격이 깔끔하고 여장부같은 어머니가 이처럼 답답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춘자 자신도 빨리 회복될 것같지가 않았던지 스스로 봇짐을 생겨 들고 일어섰다.

「아무리 생각해도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같네유. 옛날같이 금방 좋아지면 곧 올라올랍니더」

출발인사를 받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그려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같았다.

「니가 지금 가면 나만 욕을 먹게 된다. 가도 나아가지고 가야지.」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거드름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가서 잘 얘기할텝니다. 염려 마이소.」

「꼭 그렇다면 내려갔다, 좋아지면 금방 올라오너라.」

마지못해 하는 모습으로 양보하는 어머니의 얼굴에 어설픈 그늘이 스쳐갔다. 그리고 몇푼의 여비를 쥐어주었다.

집을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하고 맥이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너무했다는 가책도 스쳐갔다.

× × ×

고향집으로 내려간 춘자의 소식은 잠잠했다. 석달동안 아무런 소식도연락도 없었다. 그러다가는 일개월전부터 그녀가 위급하다는 소식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병원검사 결과 뇌속에 혹이 생겨 살 가망이 없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어머니와 나는 그녀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불안에 떨었다.

그녀의 식구들이 우리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얻은 병이니까 죽어도 그집에가서 죽어야 한다고 그녀를 데리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받고부터는 나와 어머니는 불안과 두려움에 초죽음이 되다시피 했다.

집안내에서도 밤이면 괜히 무섭고, 잠자리에서는 그녀의 꿈에 가위눌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지, 밤이면 나를 불러 그녀의 곁에서 자게 했다.

우리가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보내고 있을 때, 춘자의 식구들은 드디어 고목처럼 앙상히 말라버린 그녀를 들쳐업고 집을 습격해 들어왔다. 그리고는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춘자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는 거치른 목소리로 따지고 해명하는 긴 언쟁을 하루도 빼지 않고 목이 쉬도록 해댔다.

× × ×

그녀가 숨을 거둔 후에도 그녀의 장례식은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하고 자꾸만 연기되고 있었다. 어머니와 그녀의 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그녀는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결국은 대학병원의 냉물실로 시체를 옮겨가는 촌극으로 번졌다. 시체를 냉동실로 옮겨놓고도 그들은 팽팽히 맞서 조금도 양보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언쟁만 계속하고 있었다.

「내가 더 달라는 말은 아니여. 춘자가 나이 사십이 되도록 이집에서 살다. 죽었으니께 그동안 밀린 월급하고 장례비는 내놔야할 것 아니여!」

「밀린 월급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꼬박 꼬박 그믐날이 되면 일전 한푼 안 떼고 춘자한테 주었어요. 그리고 장례비는 왜 내가 대요? 내가 춘자한테 병을 주었읍니까. 아니면 죽으라고 빌기라도 했읍니까. 저 뒷치닥꺼리 해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네가 월급을 꼬박꼬박 주었으면 춘자가 그 돈을 삼키고 갔단가? 아니면 길거리에 뿌리고 갔단가?」

「그것을 내가 어찌 알겠어요? 한동안은 그 개도둑놈같은 그놈의 학비로 보낸 것같습디다.」

「어허! 그런 어거지는 그만두고, 우리 좋게 타협하고 빨리 장례를 치르세.」

「무엇을 타협해요, 무엇을?」

끝도 없는 논쟁에는 어머니의 어거지가 많았다.

내가 알기로도 어머니는 춘자의 월급을 목돈을 만들어 한몫으로 준다고 하며 어쩌다가 용돈을 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서방의 학비로 보냈다고 하는 어거지도 나에게는 금시초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어거지에도 불구하고 춘자의 식구들이 싫었다. 하나같다 죽음의 사신같은 어두운 표정에 정나미가 떨어졌고, 이유야 어떻든 빨리 장례식을 치러버리고 내려가지 않는 것이 얄미웠다.

춘자의 장례식은 보름동안을 일보의 진전도 없이 그렇게 끌다가 결국은 그녀 부모쪽의 포기로 불만과 감정이 가득찬 분위기속에서 이틀후 오전에 치러지게 되었다. 그녀가 올라온지는 꼭 한달 만이고 죽은지는 꼭 2주만인 셈이였다.

장례식날 아침 오랫만에 잠다운 잠을 자본 나는 너무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춘자의 식구들이야 장례를 치르기 위해 대학병원의 시체실로 갔겠지만, 어머니조차 보이지 않는데에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장례식에 끌려가서 그쪽 사람들에게 시달리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번득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성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학병원의 시체실로 뛰어갔다. 그리고 상객들로 붐비는 시체안치소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어머니를 찾아 해댔다.

죽어서도 신분의 차이는 있는지, 춘자의 죽음 앞에는 조화 하나 놓여있지 않고, 초라한 향대위에서 쓰러져 가는 향 몇개가 꺼져가고 있었다.

내가 막 춘자의 주검 앞을 지났다고 생각했을 때 거북이처럼 맨바닥에 엎어져 울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불쑥 고개를 들며,

「너 이자식 잘 왔다. 내가 웬만하면 너의 앞날이나 니 애미를 봐서라도 덮어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뒤에야 더 이상 숨겨둘 필요가 없다.」

나는 뒷통수를 한대 얻어 맞는 기분으로 얼떨떨하게 듣고만 있었다.

「춘자가 니 애미다 이놈아! 너는 오늘 상주가 되어야 돼 이놈아!」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앞이 안보였다.

「니 애비는 너희집에서 하숙을 하다 너를 배놓고 도망가 버렸어, 이놈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와 춘자의 어머니에게 따갑게 모여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곧 쓰러질 것같았다.

「지금은 어느 대학교인가에서 선생질을 한다고 하드라. 니 애비나 지금의 니 애미나 다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여. 이놈의 자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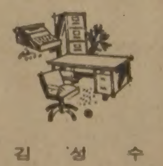
사람들이 웅성대며 나에게 모여드는 것이 가물가물하게 의식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의사를 부르라는 다급한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리고 춘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끝)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532-0111, 259-5820(R)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뺑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김 선 남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人氣잃는 유럽共産黨

蘇팽창주의 견제、歐洲각국에 脫공산화운동

佛공산당의 선거敗北,波자유화운동등 분란 계속
生存위협…黨勢만회위해 穩健주의자를 黨首로
有權者외면… 政權장악 어려워 聯立내각 구성

프랑스공산당은 서구공산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부구성에 참여하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체적인 국민지지율은크게 떨어졌다.

지난 21일의 총선결과는 프랑스공산당이 종래의 의석 83석에서 과반수정도에 해당하는 43석밖에 차지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7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SS-20 장거리 유도탄의 서유럽국경배치등 일련의 소련팽창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것은 유럽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자체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폴랜드의 자유화운동도 이런 탈공산주의 풍조의 한 단면이라고 볼수있다.

60년대중반부터 갑자기 세력을 키워오던 유럽공산당들은 차츰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됐으며 어떤 공산당들은 극단주의자를 이미 뒤로 제치고 온건주의자를 당수로 내세워 우파들과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

프랑스의 경우 공산당은 1967년 현재 총선에서 22.46%의 지지를 얻고 있었으나 81년총선에서는 16%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이태리공산당은 유럽공산당으로서는 가장 넓은 국민지지를 얻어 76년현재 34.4%의 지지를 얻고있었으나 79년에는 30.4%로 떨어졌고 이 추세는 80년, 81년을 통해 계속돼오고있다.

스페인의 경우는 77년 현재 9.24%의 지지를 얻었던것에 비해 79년에는 약간 상승된 10.66%의 지지를 얻었으나 의석획득면에서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전국적인 국민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공산당 자체조직이 꼭 약해진것은 아니다.

핵심당원들은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얽혀 쉽사리 서구민주주의와 타협하려들지 않는다.

프랑스공산당은 아직도 노동조합의 지방조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이들 핵심당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고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태리공산당은 유럽공산당중 가장 먼저 정부를 장악할지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있다.

그러나 76년이후 점차 공산당의 인기가 떨어져 왔다. 특히 이태리공산당의 세력거점이었던 노동조합과 청년조직이 금이가기 시작하여 장래성까지 의심스럽게 됐다.

이태리공산당의 가장큰 약점은 당내부의 파벌싸움.

70년대후반 국민지지가 3분의1을 넘어 정권장악의 꿈이 실현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내부 분열이 있었으나 우파와 타협하여 일단 연립내각이라도 구성하자는 파와 공산당의 최후승리까지는 어떤 타협도 할수없다는 파로 갈라져 당자체를 약화시키게 됐다.

스페인공산당은 이미 탈소련노선을 선언한지 오래다.

산티아고·카리요공산당수는 공개적으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략을 비난하는등 탈소련노선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유권자들은 여전히 스페인공산당이 소련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으며 소련이 유럽평화의 가장 위해로운 존재라고 인정하고 있다.

폴투갈공산당도 스페인공산당만큼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뿐 아직 의회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정치분석가들은 프랑스정부의 '공산당입각이 아마도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유럽공산당승리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럽공산당들은 우파단도 중도좌파와 연합함으로써 중도우익노선에는 물론 극좌노선으로부터의 지지마저도 잃게 될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정일화기자〉

상점경영의 묘미 ⑥

판매증진책

RSI 연구소장 피터·태사

"어떻게 소규모 독립소매상이 규모가 큰상점들과 경쟁해서 판매를 늘이나"하는 것이 소매상경영학에자주 언급되는 문제이다.

할 수 있다!
해야된다!
요행이 아니다!

흔히 상점경영자들은 물건채우기등 상점 뒷일에 대부분시간을 보내나 그보다 직접 가게손님들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님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라. 그들도 당신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할때 주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물건을 살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손님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돈만들이고 판매를 증진하는 방법이다.

스토아를 정결하게 하라. 물건을 손님들이 찾기쉽게 하라. 더욱중요한것은 손님을 맞이할때 명랑한 분위기와 정중한 태도이다. 예를들어….

"I like you. I enjoy your visits and I appreciate your business." 라고 얘기하는 상점주인에게 그 어느 손님이 화를 낼 수 있을까?

효과 : 100%, 비용 : $0

그밖에 몇가지 지나칠수없는 판매증진책이 있다.

상점손님들은 발렌타인·데이, 부활절, 어머니날, 아버지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

상점주인이 직접 손님에게 이런날들이나 크리스마스, 썸머, "Baek to School"등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보다 상점의 물건들은 미리 때 맞추어 준비해서 당신도 이런 기념일 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라.

시중에는 이런날을 기억할 수 있는 경영달력이 따로 있다. RSI에서 발행한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판매증진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이런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僑民과여행자를위한 生活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교포 한분이 bus를 타고보니 change(잔돈)는 없고 one dollar bill(1불짜리 지폐) 밖에 없었다.

승객중에 잔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1불을 요금통에 넣고 말았다.

여러 사람에게 물을때는 Does anybody have change for a dollar? 하면 될 것이고, 만약 한 사람에게 묻는 경우는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라고 하면된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잔돈」을 말할 때 changes라고 하지 않고 단수인 change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잔돈이 많다」고 하는 경우 I have much change.라고 하지 않고, I have a lot of change다. 이같이 구어인 경우 much를 사용하지 않고 a lot of를 사용하고 있다. 같은 예로서 I have much money.가 아니고, I have a lot of money.라고 하고있다.

change는 「거스름 돈」이라는 말도 되므로, 친절한 cab 운전수에게 Keep the change.라고 했다면, 「나머지 거스름 돈은 가지시오」라는 말이 된다.

은행같은곳에가서 10불짜리 지폐를 내밀면서 「1불짜리지폐로 10장 주시오」라고하는 경우에는 Ten singles, please. 라고 한다. 이때 single은 one dollar bill을 가리키고있다. 만일 10불을 내고서 5불짜리 한장하고 1불짜리 4장, 25센트 동전 2개, 10센트짜리 4개, 5센트짜리 1개, 1센트짜리 5개로 바꾸기를원한다면 I'd like one five, four singles, two quarters, four dimes, one nickle and five pennies. 이렇게하면 된다.

돈을 바꾸러가면 대개teller(은행의 금전 출납계)가 How do you want it? 라고 묻게되는데, 이것은 「돈을 어떻게 거슬러 드릴까요?」라는 말이다.

A :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B : I think so, why?
A : I need some change for the bus.
B : How do you want it?
A : I need a couple of quarters and five dimes.
B : Here you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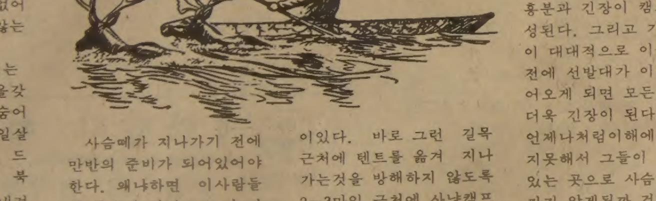
A : 1불짜리를 바꿀 잔돈이 있으세요?
B : 있을것같습니다. 왜그러시죠.
A : 버스타는데잔돈이필요하군요.
B : 돈을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A : 25센트짜리 동전 2개와 10센트짜리 5개면 되겠읍니다.
B : 여기있읍니다.
※cab : 택시, taxi cab이라고도함 take a cab 택시로가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⑥⑩

팔리·모왓 원작, 원 재 중 옮김



사슴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때까지는 새끼사슴 이외에는 가죽이 별로 쓸모가 없어서 사냥을 많이하지 않는다.

사냥꾼들은 휘청거리는 사향소 뿔로만든 석궁을갖고 산을넘어 사슴이 숨어있는곳을 기어가서 제일살찐 사슴만 골라잡는다. 드디어 늦은 여름이오면 북쪽으로부터 사슴떼가 내려와 이할미우트의 땅을 지나간다. 이때가 년중 제일 큰 사냥기간이다.

단 며칠동안만 지나면사슴들은 겨울이 닥치기전에 남쪽으로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후로 봄이다시오기전에는 사슴떼는 볼수가없게된다.

사슴이 리틀힐스를 지날때는 조금도 멈추지않고 홍수처럼 밀려와 곧 지나가 버리고만다.

사슴떼가 지나가기 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람들의 목숨이 전적으로 이 가을사냥의 성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을이 오기전에 강과호수의 얼음은 모두녹아 없어지므로 사슴들은 큰 호숫가의 꾸불꾸불한 길을따라서 혹은 무수한 강을넘어 새로운 길을따라 내려온다.

이할미우트의 땅에는 사슴들이 호수와 산때문에좁은 행렬로 지나가는 그런 오래된 길목이 상당히 많이있다. 바로 그런 길목근처에 텐트를 옮겨 지나가는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2~3마일 근처에 사냥캠프를 친다.

옛날에는 가장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 7개였는데 그 근처에는 30~40개의텐트가 세워지곤 했고, 그지역에 흩어져있는 다른작은 길목에도 수없는 텐트가쳐졌다고 들려 주었다. 이들 캠프에서 남자들은 카약을 손질하고 동으로된 창끝을 갈아 면도날처럼 세워놓는다.

여인들은 근처를 돌아다니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높이 쌓놓고 맛있는 사슴의 기름덩이를 구어먹기 위해서 일년중 가장큰 불을 피울 준비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삼일씩 강 북쪽으로 배를저어가서 사슴이 오는것을 볼수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보고 그 소식을 캠프에 전한다.

가을이 천천히 깊어가면 흥분과 긴장이 캠프에 조성된다. 그리고 가끔 사슴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기이전에 선발대가 이땅으로들어오게 되면 모든 캠프는 더욱 긴장이 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이해에 운이 좋지못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사슴이 지나가지 않게될까 걱정을 하게된다.

모든 캠프에는 잠자는사람도 쉬는사람도 없다. 저녁에는 사냥꾼들이 사슴을 보고, 잡던 이야기를 혹은 사슴을 잡기위한 노래를북소리에 맞추어 밤이 샐때까지 부른다.

10월쯤되면 눈이내리기 시작하며, 카약이 강의 북쪽으로 띄워져 카약을탄사람이 창을높이 휘둘러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사슴이 온다"하고 캠프 는 이구동성으로 떠들썩 해지고 사냥꾼들은 각자 맡은장소로 뛰어가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슴이 건너는 북쪽의 산등성이로 뛰어올라간다. 이제 큰 도살이 시작된다. 강속으로 넘어오는 사슴은 카약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고, 산골짜기와 산비탈에서는 사냥꾼이 사슴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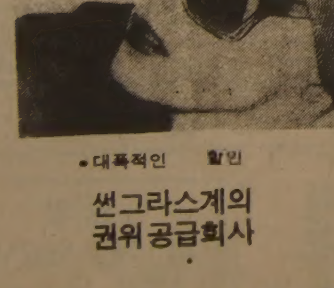
사슴이 넘어오는 길목에는 사슴피가 강물을 이루고 사냥은 매일 늦게까지 계속된다. 캠프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피워지고, 사슴의 흰 기름덩이가 텐트안에 쌓여진다.

나무가지 위에는 얇게썰은 사슴고기를 말리느라고 캠프주위에 있는 골짜기를 회미해져가는 햇볕에 붉게 물들이고 있다.

전지역이 특히 사슴이넘어오는곳은 작은 돌덤이들이 회색의 평원에 상처처럼 솟아나와 있다. 이 돌덤이 밑에는 죽은 사슴들이 네쪽으로 갈라져 쌓여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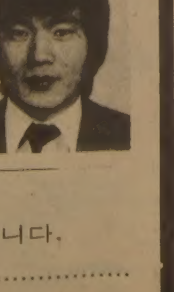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호섭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SEIWLL THE KOREA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40대 전후한 여자분으로써 가게에서 뒷일
보아주실분 구함(힘든일 없음). 지하철 근처
☎ : 489－1650 3시～10시

애기와 살림해주실분 구함
☎ : 244－7303
663－1053

주방헬퍼2명,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도나스샾에서 일할 여자분
풀타임 : 월～금(3～11PM), 파타임 : 토요일(3～11PM)
☎ : 482－4088

캐 비 넽 MAKER
FINE CUSTOM WOOD WORK.
GOOD PAY, BENEFIT
☎ 742－7725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6, MRS. THOMAIDIS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차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경험있는 가게헬퍼 구함 :
월급 : $1140
☎ : 923－3574

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남자분을 원합니다.
☎ : 248－6555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GAS ATTENDANT : ☎ : 782－6311

가게일 도우실 젊은 남자분 :
주6일 근무(월, 수, 목, 금, 토, 일)
Long Hours (AM9시30분～10 : 30PM)
주급 : 380달러(STARTING PAY)
☎ : 532－2961

스토아 파타임헬퍼구함(남자분)
스카보로지역
☎ : 267－0847

웨이트레스 구함 :
풀타임과 주말 파타임
☎ : 757－6334

쥬스바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5시 이후 연락바람
☎ : 438－0403

매매및 양도

바쁜 프라자내 CONVENIENCE스토아 : 주매상 : $6300
보증, 리스 : 5년, 아스킹 : $59,000, 이상적인 페밀리 Operation
☎ : 766－9968 3437 st.Clair Av.E. 와 Birchmount
HELLENIC REALTY LTD. REALTOR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6107 YONGE ST.
☎ : 223－7278 JOHN.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시간 짧은 MALL안에 있는 스모크 샾
주매상 : 3천5백달러,
PICK UP드라이크리닝 : 주매상 1500달러,
드라이브 인 햄버거 플레스 : 주매상 6000달러
장래성 있는 벡커리 도나스 가게
☎ : 741－9170, A. E. LEPAGE LTD. MRS. WOO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스토아 급매 : 2층집 달린 가게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766－9491

COUNTRY STYLE 도나스샾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좋은지역에 위치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사실 절호의
기회, 6년계약 싼 렌트, 아파트살림집 포함.
☎ : 654－4410, 635－8405 MR. 리타 리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 0463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 · 힐)
1272 YONGE ST. MR. INGHAM

성업중인 픽 · 업 세탁소 팝니다 :
2687 EGLINTON AVE. W. (KEELE근처)
☎ : 656－4727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꽃 집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 - 5851 이 동 환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PALMER'S시설 판매수리 :
에어콘, 전기, 개스, 워킹쿨러, 후리저
☎ : 746－3840(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남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여권 분실

분실공고 : 여권을 분실하였기 공고함
1619 ANWORLD COURT. MISSI. ONT.
☎ : 531－3491 이 홍 범

집 · 방세 · 하숙

2층집 독채 : 3 베드룸, 2 목욕실, 차고.
10월1일 입주가능 월650달러
☎ : 465－6067 제인과 쎄인 크레어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 · 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1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 렌 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기 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 · 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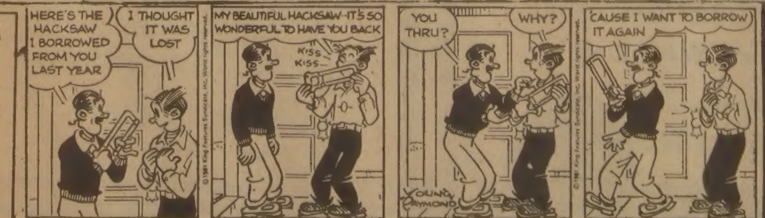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출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나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 · 신경과 · 부인과 · 침구과 · 산후보약(왕진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블론디
딘 · 영 作
本本特約 · 連載漫畵



"작년에 자네한테서 빌어간 쇠톱일세"
"난 잃어버린걸로 생각했어"
"멋진 내쇠톱… 돌려받다니 정말 반가운 일, 이야"
—쪽 쪽—
"자네 다 끝났나?"
"왜?"
"이걸 다시 빌어갔으면 해서 말이야"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돌개바람불다 ①

<200>
趙善 作
禹慶熙 畵

이튿날아침 일행 다섯사람은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만났다. 맨먼저 나온 사람은탤런트 윤나미와 그녀의 어머니인 권여사였고, 두번째는 나, 세번째는 유장훈감독이고, 마지막으로 그가 열차출발시각에 임박해서 나타난것이다.

그가 나타나기까지 나는입안이 바짝 마를 만큼 초조해 있었다. 그가 말아야지, 유장훈감독의 초청여행이니까 그에게 꿀릴 것은 하나도 없어, 심장을 든든히 해가지고 그가 싫어하든 말든 아주 뻔뻔스럽게 굴어야지, 하고 지난밤부터 나는 되풀이 다짐해 두었었는데도 막상 서울역앞에 도착하니까 그런 결심 따위는 눈녹듯이 슬그머니 녹아 버린 것이다.

유감독이 먼저 나타나 나를 윤나미와 그녀의 모친에게 소개해준 뒤로는 그런증세가 더욱 심해져 다리까지 후들거릴 지경이었고, 그가 시간이 임박하도록 나타나지 않자 유장훈 감독이 그의 아파트에 전화를 걸어보겠다며 공중전화 쪽으로 간 사이, 권여사가 조심스럽게 얼굴색을 살피며 『추워요?』 하고 묻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서도 내가 초조하게 상상했던 어떤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를 발견하자 그는 한동안 넋을 잃은 사람처럼 바라보더니, 유장훈 감독에게『어케 된거요?』하고, 전에도 한번 들어본 일이 있는 그의 특유한 말씨로 신음 겸 비명을 울렸을뿐, 모두 시간이 바빠서 급히 개찰구 쪽으로 몰려간 것이다.

『어케 된 걸 따질 새가지금 어딨어?』

유감독은 우선 그런 말로 그의 의문을 덮어 누르는 듯싶었다. 그 두 남자가 앞서고, 윤나미 모녀와 나는 서너 걸음 뒤에서 그들을 뒤쫓았는데, 유장훈 감독은 아마 그에게 몇 마디 더 나의 돌발적인 출현에 대한 해명을 덧붙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 상관하지 않았으며, 다만 어차피따라나섰다, 이젠 됐다는 느낌뿐이었다. 동행이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것이다. 정릉 이래 그가 내게 연민을 보내오고 있는 기미가 분명한 이상 이번만은 결코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최소 단위는 연인이라고 누군가 말했었지. 그걸 잡아야 해。 이렇게 나는 한껏 부풀어서 다짐했다.

역 구내의 침침한 구름다리와 계단, 그리고 플랫 폼을 거쳐 일행은 열차에 올랐다. 좌석 두개를 서로 마주 보게 고쳐놓고 그곳에 일행다섯사람이 모두 앉자 열차는 곧출발했다. 나를 위해서 나중에 구한 표한장은 아마 다른 칸의 좌석인지, 『빙모님, 빙모님은 이거 가지시고 빙모님 자릴 찾아가시는게 어떻겠읍니까? 혹시 옆자리에 회색머리의 근사한 신사라도 한분 앉아 계실는지 모르잖아요?』 하고, 유감독이 표하나를 꺼내 보이며 유들유들하게 말했고, 권여사는 『아냐, 난 회색머리보다 콧수염이 더 좋아. 늙었다고 젖아내려고 하면 다음 역에서 내릴거야』 하고 유감독을 흘겨보았다. 『불편을 하실 텐데,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가볼까요?』 라고 내가 유감독에게 표를 받아들려고 하자, 그는 그것을 낚아채며 무중하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고, 윤나미와 권여사도 『아녜요. 여기 있어요, 언니』『무슨 얘기야. 다 함께 가야지』 하고 한마디씩 했다. 그런데 그 말은 제발 그렇게라도 좀 해다오, 하는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 모르게 힐끗 나를 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그런 시선을 모른체 해버렸다.

잠시후에 그와 유감독은 권여사를 앞세워 식당칸으로 갔다. 윤나미는 처음부터 안가겠다는 의사였고, 권여사와 유감독은 내게도 함께 가기를 권했는데 나는 사양했다.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길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11代 첫定期國會 앞으로 1週
教育稅·國會法등 최대爭點

15일께 總務會談…日程논의

民正 民韓 국민등 각정당은 그동안 物議를 일으킨 돗자리波動이 일단락되고 11대국회의 첫定期國會가 1주일 앞으로 臨迫함에따라 금주중에 각종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운영에 관한 院內對策을 마무리할 예정이다。民正黨의 李鍾贊、民韓黨의 高在淸、국민당의 李東鎭총무등 3黨총무는 12일낮에만나 돗자리波動의 마지막 수습과 아울러 정기국회의 議事日程과 운영방향을 협의했는데 이들은 15일께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議題검토와함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예정이다。

會期90일豫決委·常委병행 民正
서민생활保護·減稅등重點 民韓
行政기구縮小·改革에비중 국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육세신설을 비롯한 전반적인稅制개편문제와 정부가낸 公職者倫理法案 그리고 民韓 국민당에서 제출할것으로 보이는 國會法 개정안을 비롯한 일부 정치관계법안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은 해외시찰중이던 權正達사무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금주초 黨職者회의를 여는동시 오는15일까지 政策委 豫決委에서 새해예산안의 종합심사를 마치고 18일에는 靑瓦臺에서 黨政협의회를 열어 정기국회운영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民韓黨은 오는14일 黨務會議를 열고 정기국회 對策을 협의하며 국민당은 16일까지 特委·小委등에서 마련한 각종 政策試案을 종합하여 1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채택하는 한편 정책질의의 방향을 논의한다。

[民正黨] 李鍾贊총무는 12일『이번정기국회는 12월18일까지 90일간으로 운영하며 개회와동시 豫決委를 구성하여 1개월 동안 追更예산안、決算、예비지출、새해예산안을 차례로 심의하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히고 효율적인 國政토의와 예산심의를 위해 豫決委는 常委와 併行하여 稼動할것이라고 정기국회 운영의 기본방침을 밝혔다。

그는 豫決委에▲운영법사 내무▲외무 국방▲재무 경과 상공▲농수산 건설▲문공 보사 교세등 5개分科委와 계수조정小委를 둘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의 施政연설에이어 약1주일동안 本會議에서 對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常委활동은 위원장 책임하에 독자적인 운영일정을 정해 자유스럽게 운영될것이라고 李총무는 말했다。

[民韓黨] 민생활보호및 국민부담輕減과함께 정기국회에서 國會法개정문제를 포함,각종 法律의 改廢를 관철위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韓英洙 정책심의회 의장은 특히『현행勞動·司法관계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등에 많은 문젯점이 드러났다』고 지적、『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議政활동을 통해 정책정당의 위치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民韓黨은 이밖에 교육세신설을 반대하고 공직자윤리법안의 보완에 議政활동의 力點을둘 예정이다。

[국민당] 해黨이 그동안 제기한 교육세 신설 반대에 따른 代案,행정개혁안,稅制개혁안및국회법개정안을적극반영시킬방침이다。

국민당은 특히 黨이앞서제시한 교육세신설 代案과간소한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기구축소·개혁안에 큰 비중을 두는 한편 새해예산안심의를 위해 이번주안에 黨豫決委를 구성,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는 대로 예비심사에 착수하기로했다。

[議政同友會] 院內교섭단체 구성요원은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할것을 골자로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할방침이다。

교육세신설을 반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稅制를개선、교육재원을확보해야한다는입장을관철키로했다。

忘憂里 墓域엔 10萬의 省墓인파

◇추석인 12일 4만6천여기의 묘가 자리잡은 서울근교 忘憂里 묘역에는 10만이상의 성묘객이 붐볐다。크고작은 봉분들이 물결처럼 온산록을 뒤덮은 이묘역에서 성묘객들은 조상의 묘를찾아 제수를 올렸다。【본사세스나機上에서 徐鍾道기자찍음 金海日항공부차장조종】

「安保經協」政治的타결 모색
年末年初께 韓日頂上회담 통해

韓日양국은 제11차 정기각료회의에서 핵심 현안이었던 安保經協문제의 타결에 일단실패했으나 오는 연말 또는 내년초로 예정된 양국간의頂上회담을 통해 정치적타결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빠른시일안에 외교경로를통해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하게될것으로 알려졌다。

兩國外相 유엔서 日程협의

정부는 이에따라 금주중盧信永외무장관등 이번 각료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高位대책회의를 열어 각료회의에서 드러난 양측의 기본입장등을 분석검토、외교 교섭의 방향과 安保經協의 관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울것으로 보인다。

관측통들은 盧장관이 11일 각료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회의의 결과에 대해『양측이 수뇌회담개최에 합의한만큼 결코 決裂은 아니다』고 밝힌점등을 들어 安保經協에 관한 양국의평행한 異見이 頂上회담에서 타결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소식통들도『두나라모두가 安保經協의 連繫나구체적인 액수결정을 각료회의線에서 妥結되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전제、『이번 각료회의는 앞서8월 東京의 外相회담과함께 문제의 최종해결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韓日양국은 이에따라 頂上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장소문제등을 외교경로를통해 협의하는 한편 오는10월초 뉴욕에서있을 양국外相간의 접촉을통해 頂上회담의 구체적인 日程등을 최종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외상의 뉴욕 접촉문제에 관해 한관계자는 이날『盧信永외무장관이 유엔總會에 참석하기위해 이달말 뉴욕으로 떠날예정』이라고 전하고『이럴경우 愼例삼 뉴욕에서 양국外相간의 회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질수있으며 對坐할 경우 10월초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곧 착수하게될 외교채널을 통한「계속교섭」에서는 이번각료회의에서 드러난양국의異見點들을再點檢하는한편60억달러經協의妥當性을 프로젝트별로 재검토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韓日각료회담 失敗 美、신중한態度보여

【워싱턴11日=聯合】한일간의 60억달러 경협협상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온 미국정부는 11일 공동성명도 발표하지않은채 실패로 끝난 한일각료회의에 즉각적인 반응을보이지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美국무성의 동아시아 태평양문제담당대변인 제임즈·메너드씨는 이날 국무성이 주한미대사관으로 부터 한일각료회의에 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지못했기때문에 회의결과에 대한 논평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레이건 미행정부 관리들은 한일경협협상진전상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한국무성관리는 이날 각료회의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외교적 경로를 통한 후속협상으로 한일양국간에 타협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성의 다른관리들은 한반도안보상황에 대한 日本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전제되지않는한 한일양국간의 협상타결은 어려울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표명했다。

權總長 오늘 歸國

權正達 民正黨 사무총장은 약20일간 미국 일본 멕시코 방문을 마치고 13일하오7시30분 KAL편으로 귀국한다。

權총장은 美국무성 초청으로 訪美、지난2일 미주리대학에서「새太平洋시대의 개막과 韓美양국의 역할」이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對韓관계 당분간靜觀
미야자와官房 頂上회담 早期개최 희망”

【東京12日=文昌宰기자】일본정계는 한일각료회담이 이렇다할 공동성명도 내지못하고 성과없이 끝난데 대해 한동안 냉각기를 갖고 천천히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미야자와 (宮澤) 관방장관은 12일상오 기자회견을 갖고『한동안 숨을 돌릴필요가 있다。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하는 문제는 천천히생각해보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수뇌회담에 대해서는『구체적인 계획은 없다。아직 시기에 관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좀숨을 돌리고 나서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말해일본측이 수뇌회담의 早期개최를원치않고당면사태를정관하겠다는태도를표명했다。

미야자와장관은 또 全斗煥대통령이 양국수뇌회담을가급적 빨리 개최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일본측도 조기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없다』고 말하고 수뇌회의를위한 실무레벨의 협의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것인지 또는 다시 외상회담을 열어「인식의 일치」등에를 도모해야 할것인지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서 또 수류탄터져
聖職者등6명爆死

【테헤란11日AP=聯合】신원미상의 한 괴한이 11일 이란서북도시 타브리즈의 광장에서 금요기도회에 참석하고있는 군중속에 섞여 허리춤에 차고있던 수류탄을 폭발시켜 호메이니옹의 심복이며 타브리즈시의 최고성직자인 아야툴라·아사둘라·마다니씨가 사망했다고 테헤란 방송이 보도했다。

테헤란방송과 관영 파르스통신은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이 테러범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마다니씨외에 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파르스통신은 기도회가 끝날무렵 범인이 질문을 하려는것처럼 가장하고 마다니씨에게 접근한뒤 허리띠에서 수류탄을 뽑아 터뜨렸으며、마다니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중 숨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호메이니옹은 숨진 마다니씨를 회교혁명의 순교자라고 추앙하고 聖都市의 성직자 아야툴라·메시키니를 후임자로 임명했다。

한국購買 F16機 早期배치등 推進
訪美 金국방委長

【워싱턴12日=曹淳煥특파원】미국을 방문중인 金永先국회국방위원장은 11일상오 한국이 사들이기로한 F16機36대의 조기배치、그 대금조달및 해외판매차관(FMS)의 償還연기、그리고 한국무기의 第3國판매에 관한 문제등에 관해 下院의 프라이스 국방위원장 아시아·태평양小委 공화당측 원로 프레차드의원과 각각 회담했다고 美의원 보좌관들이 말했다。

金위원장 일행은이날 하오에는 타워上院군사위원장과도 회담을 갖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美의회측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소식통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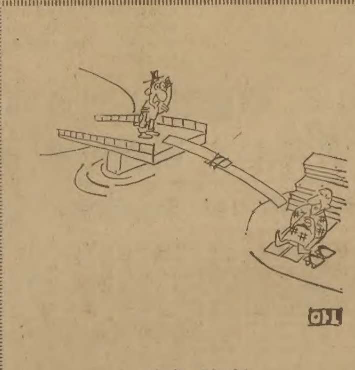
産災보험대상擴大 10人이상事業體로
民正、改善추진

民正黨은 근로자들이 업무상 災害를 입었을때 지급받는 産災保險給與의 적용범위를 현재 16人이상의 사업장에서 10人이상으로 확대하고 給與額을 평균12% 인상하는등 産業保險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李鍾律 民正黨 부대변인은 12일『현행제도의 보험給與수준이 국제수준에 미달하고 補償혜택을받는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 지급된 보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못해 생활안정에 큰도움이 되지못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改善策을 마련했다』고 밝히고『受給대상자들의 장기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一時金과年金으로 병행 지급하도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를 이미 勞動部와 협의를 거쳤다고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産災補償보험법과 産災補償보험특별회계법등 관계법을 개정하고 年金기금설치에 필요한 財源은 지금까지 産災保險 剩餘金으로 적립된 3백70억원의 積立金과 매년예산에 計上되는 일정액및 決算잉여금으로 확보할방침이라고 말했다。

社會漫評



계속 회피

地平線

『어느땐가 없어져 주춧돌만 남았던 조그만 암자의 이름이 지난해 이래 갑자기 한국을 대표하는 聖地의 하나로 등장하고있다。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산기슭에 자리잡은 이『옛터』에는 순례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잊혀진 성지를 찾아나선 한국일보의 李忠雨기자는 작년9월3일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이었던 天眞庵터를 이렇게 그리고있다。

▼이때는 朝鮮왕조가 아직도 허깨비같은 대의명분론에서 깨어나지 못한채 시대의 물결에 눈을 감고있을 때였다。明을 쓰러뜨린 오랑캐 淸은 아직도 용납할수 없는 원수였다。그러나 北京을 오가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오랑캐의 나라에 밀려오는 서양문물앞에 눈이 휘둥그래 졌었다。北學論이란 북쪽 오랑캐에 배우라는 이들의 주장이다。

▼처음에 천문학·수학같은 과학기술에 놀랐던 朝鮮의 지식인들은 光海君때부터 천주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종교로서의 천주교가 아니라 학문으로서의「西學」이었다。北京에 와있던 마테오·리치와 그가 쓴 天主實義는 이미 李睟光의 芝峰類說에서 소개되고있다。홍길동으로 유명한 許筠도 1603년 北京을 다녀와 西學을 연구했었다。

▼한국의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의 선교에 의해서 들어온게 아니라、이처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들어온「세계 유일」의 교회다。朱子學을 읽는게 아니면 모조리「斯文亂賊」이라고 해서 역적취급을 받던 시절의일이다。처음엔 朱子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儒學을 보충하는 소위「補儒論」으로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朱子學의 신분질서와 충돌하지 않을수 없었다。

▼초기교회가 싹터가고있던 1801년 전국의 신도들가운데 양반은 20.6%였다고 金蒙恩신부는 그의 논문에서 말하고있다。이들은 잠들어 있는 朝鮮왕국에 밀려올 새로운 시대의 입김을 예언하는 선구자였다고 할수있다。이들은 대부분 정권에서 밀려난 南人에 속하는 지식인들이었다。한국 천주교회사의 특징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본인은… 지금 朝鮮왕국을 새 교구로 설정하는바이고 이교구에 북경교구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교구장을 설립할것을선언한다』는 로마 교황의 친서가 발표된 것은 1831년9월9일이었다。스스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믿음을 받아들인 세계유일의 교회가 승인된지 꼭 1백50년됐다。9월들어 서울과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있는 기념행사가 이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는계기가 됐으면 한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460
은: 온스당 US11.0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YMCA한글·영어학교 (무료)학생모집

◇토론토Y한글학교 : 9월26일(토)개학
때 : 매주 토요 오전10시반~오후1시
곳 : Bickford Park고등학교(크리스티 지하철 서편 뷰루어 남쪽)
◇토론토영어교실 : 한글학교와 같은 곳 같은 때에 노인반·회화반이 있음
◇웨스톤영어학교 : 10월5일(월)개학
월·수 오후7시~9시
웨스톤Y어린이학교 : 9월23일(수)개학
매수 오후4시반~7시
◇YMCA토요학교 :
9월26일(토)~12월12일(토)11주간
때 : (토)오후2시~3시반, 3시반~5시
곳 : West End Y임시회관
문안나 미술교실($25)
김정숙 무용교실($30)
이태우 태권도교실($25)
이진화 바이올린교실($40)
권혁일 기타교실($25)
노경심·김영훈 피아노교실($40)
※한 학생이 두과목 이상 택하면 $5할인, 한집서 두학생 이상 등록시 $5할인, 집집마다 다니는 스쿨버스가 있읍니다. 월 $20정도 속히 신청하십시오.

제15회 YMCA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3만섬 단풍관광
금년에는 알공킨보다 낫다는 3만섬을 유람섬으로 관광합니다.
일 시 : 10월3일(토)오전9시출발 오후8시도착
교 통 : 냉온방이되고 화장실이 구비된 관광버스와 간이식당이 있는 유람선
후 원 : 와이즈멘즈클럽, 알파 클럽
모집인원 : 약100명(회비접수로 좌석이 확보되며, 회비는 반환되지 않음, 우천시도 실시함)
회 비 : $22, 노인$21, 어린이 $20

헬로인 의상 만들기
아 침 반 : 10월15~16일(목·금)오전9:30~오후2:30
저 녁 반 : 10월14~16일(수~금)오후6:30~9:30
강 사 : 배운송 선생
강 습 료 : $25(부속대 일체)
모집인원 : 약20명 선착순
의상종류 : 토끼·호랑이·곰·광대·코끼리등

대표문의 : YMCA(536-1166)미스터 김
(15 Robina Ave. Toront, M6C 3Y4)

코리안YMCA총무 김 창 열

NORTH-YOR BOARD OF EDUCATION
한글교실 개강과 학생모집

노스·욕시 81년~82년도 모국어 교육프로그램(한글교실)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 소 : 노스·마운트 쥬니어 하이스쿨(작년과 같은 장소)
70 Maxome Ave.
시 간 : 1981년 9월2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6시~오후8시30분
학 급 :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수업료 : 메트로·토론토에 거주하는 학생은 무료
메트로 밖의 학생과 9학년이상의 학생은 25달러
연락처 : 이 인 용789-73 2, 222-3076
김 문 고889-8290
MR. McKEOWN 225-4661(ex. 294)

〈노스·욕 한글학교〉

이스라엘、美에 軍基地제공

베긴提議 兩國間「戰略협력」一環으로

◇美·이 兩國관리들의 朝餐會談 알렉산더·헤이그 美 국무장관(오른쪽 첫번째)과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왼쪽 첫번째 안경쓴사람)이 양국관리들과 함께 11일 백악관에서 조찬회담을 갖고있다。【워싱턴11日AP電送=聯合】

合同機動訓鍊도 계획

蘇의 中東地域위협 沮止가 목적

【워싱턴11日AP=聯合】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11일 이스라엘은 미·이스라엘「전략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육·해·공군기지 및 시설을 이용하도록 미당국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이날 미·이스라엘양국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중동지역을 보호하기위한 새로운「전략제휴」의 일환으로 양국 합동군사기동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말했다。

베긴수상은 이날 영빈관에서가진 오찬회에서 미탱크의 이스라엘내 비축과 미공군의 이스라엘지중해 항만이용등의 실무문제가 현재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과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간에 검토되고 있다고밝혔다。

베긴수상은 자신은 소련의 중동지역 안보에대한 위협을 저지하기위해 미국에 이스라엘군사시설을 이용할것을 제의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미·이스라엘양국간의『전략 협력』의 일환이라고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지상군의 이스라엘 주둔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방위조약도 요청하지않았다고 밝히면서『우리는 이스라엘의 방위문제와 소련의 중동세력확장에 대한 저지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있다』고 덧붙였다。이같은 베긴수상의 제의에따라 이스라엘 항만들이 제6함대에제공될수 있으며 미공군도 지중해기지를 가질수있게됐다。

美·이同盟구축위협 경보기販賣 거부면

美國務省 경고

【워싱턴12日UPI=聯合】美국방성의 한고위관리는 11일 만일 의회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판매하려는 행정부계획을 거부한다면 美·이스라엘정부가 이미 합의한 양국간의 전략동맹체제구축이 위협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관리는 對사우디 AWACS판매가실현되지 못할경우 中東각국은 美·이스라엘 전략동맹체제가 소련을 겨냥한 전략협력체제임에도 불구하고 中東을겨냥한것으로 오해할가능성이 있다고전제,이같은오해가 빚어진다면 美國의중동평화시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하는 어려움이있다고밝혔다。

이관리는 이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면 이스라엘과의 전략협력체제구성도 늦춰지지 않을수없다고 덧붙였다。

中共、IRBM실험

7月하순 發射…금년들어 最初

【北京11日共同=聯合】중공은지난7월하순경 陝西省북서쪽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사정거리 1천5백마일(2천5백km)의 중거리탄도탄(IRBM) 발사실험을 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중공이 금년에 미사일실험을 한것이 외부에 알려지기는 지난해12월이래 이번이처음이다。그동안 중공은 미사일성능향상계획의 일환으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해왔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에 발사된 IRBM이 新疆省서쪽 民주지역의 낙하지점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擧國정부 基盤확보 자유選擧 勝利자신"

波자유노조 共黨대체할 새勢力시사

【바르샤바11日AP·AFP=聯合】동구사상 최초의 노조전국대회를 갖고 의회자유선거 실시를 요구한 폴란드 자유노조(솔리다리노스크)는 현재 거국정부를 구성할수있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있다고 한 자유노조지도자가11일 말했다。

또한 서방외교관측통들도 이날 자유노조가 폴란드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으며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국민의 대표를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새로운 현태의 사회주의를 구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노조 스체친市(발트해연안 항구도시) 지부장 마리안·유르츠이크는 기자회견에서 자유노조는 지난3월 총파업을 경고했을때만해도 정부를 구성할정도의 국민적지지기반을 갖지못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거국정부를 구성할 충분한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있다고 말했다。

외교관측통들도 자유노조가 현재 광범위한 폴란드국민의 지지를얻고있으며 노조지도자들은 자유·비밀투표로 국민의 대표를선출하여 의회와 지방의회를 구성할경우 자유노조가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또 자유노조지도자들은 현폴란드정부가 무능하여 식량배급,공업생산및 후생복지등의 문제를 관리하는데있어 공산당을 대체할사회적 세력이 출현해야할것으로믿고 있다고 말했다。

메아리

女선생님

교직자들은 지금 天職의 요구와 평범한 직업인으로서의 갈등을 겪으며 살아 가고있다。생활하는 직업인인 초중고교 선생님을 교사라고 부르나 가르치는 분들을 통틀어「스승」이라고 높인다。스승이라는 말에서 권위와 숙연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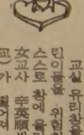
退溪는「師弟관계」를 맑은 샘터에 비유했다。『제자는 스승의 품속에 파묻은 정신의 샘에서 각기 물을 마시다 떠나도록 가르쳐야한다』고。

시대의 변천과 함께 교사의 지위나 의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교사들 자신이이런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교련이연전에조사한 30여종의 직종인기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사회적위신은 중등교원이 21위、초등교원은 25위였다。경제적 지위는 이보다 조금 더처진다。미국에선 92개직업중 교사는 20위、일본은 30개 가운데 11위에 올라 있음과 너무 심한 대조가 된다。

국민학교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고민은 과중한 업무와 대우에 대한 불만이다。특히 여교사의 경우 출산휴가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해 후유증을 앓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여교사의 증가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아르헨티나는 국민교 교사의 92%가 여성이다。브라질 스웨덴 칠레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60% 이상이 된다。우리나라는 평균34%정도이나 대부분의 대도시에선 여교사가 60%를 넘어섰다。



孔子는「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智는 사람을 아는것」이라고 했다。며칠전 우리는「仁의 스승」을 보았다。

교실 유리창을 청소하는 어린이들을 위험하다고 말리고 스스로 창에 올라 유리를 닦던 女교사 李英順씨(서울聖水국교)가 떨어져 크게 다쳤다。

말뿐이아닌 행동으로 스승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스승의 품은 마르지않는 샘터같음을 거듭깨닫게했다。

평생을 교육에 바치고 최근 정년으로 물러난 한 노스승의 술회가 가슴에 와 닿는다。「선생은 뱃사공과 같아 타고 내리는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天職이다」

뱃사공이 물에 빠질 위험이 있어선 안되겠다。3·4층 유리창에 여교사와 어린이가 매달려야 하는 학교여건은 빨리 그 개선책을 찾아야한다。

◇프랑스와·미테랑프랑스대통령과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이 11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있다。【런던11日UPI電送=聯合】

經濟정책 異見노출

英·佛、頂上會談 폐막

【런던11日AP·UPI=聯合】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은 11일 미테랑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가진 이틀간의 양국정상회담을 끝낸뒤 이번회담이 일부문제、특히 경제정책부문에서 다소 異見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훌륭하고 유익한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대처수상은 회담 폐막직후 미테랑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이번 회담이 훌륭했으며 분위기도 매우 우호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으며 미테랑 대통령도 이와똑같은견해를표명했다。

이집트、反政데모 격렬

回敎徒들 國民投票 결과發表후 거리로

【카이로11日AP=聯合】사다트대통령의 반정부인사검거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임투표가 99·45%의 절대적 지지로 나타났다는 정부발표와 때를 같이해 수백명의 이집트 회교정통주의자들이 11일 정부조치에 항의하는 격렬한 데모를 벌였다。

약3백명의 회교정통주의자들은 이날 카이로 쿠베사원에서 예배를 마친뒤 일제히 사원밖으로 뛰어나가 반정시위를 벌이다 즉각 출동한 보안군들의 최루탄세례를 받고 해산했다。

이와 동시에 역시 카이로 중심부에 위치한 아바시에사원밖에서도 약3백명의 회교신자들이 데모를 벌이려다약 2백명의 폭동진압군의 제지로 해산했다。

反越대표들 방콕着

【방콕11日AFP=聯合】캄보디아의 3大저항세력 실무대표들이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현 캄보디아 정권타도를 위한 연정구성문제를 협의하기위해 11일 방콕에 도착했다。

캄보디아의 전국가원수 노로돔·시아누크공계와 전수상이며 반공게릴라단체대표인 손·산계, 크메르·루지의 키우·삼판계등 3개파 실무회담은 확정되지 않았다。

◇蘇軍기동훈련에 참가중인 兵士 2차대전후 최대규모의 소련군기동훈련에 참가중인 한白러시아병사。【白러시아11日AP電送=聯合】

蘇해군 波접경上陸

5천명…발트海 대규모 機動훈련중

【코펜하겐(덴마크)11日UPI·共同=聯合】발트해에서 대규모기동훈련을 실시중인 소련해군은 11일 폴란드자유노조운동의 발상지이자 최근 자유노조제1차전국대회 1단계회의가 개최지였던 한도 그다니스크(前단지히)로부터 불과 1백km 떨어진 소련영토 발티스크북부해안에 약5천명의 해병대를 상륙시켰다。

그다니스크와 단지히만을 사이에두고 마주보고있고 소련발트 백러시아군구와 인접해있는 발티이스크에서의 소련해군상륙훈련에는 소련해군의 최대상륙정인 이반·로고브호를 비롯한 수십척의 상륙정과 소련군함들중 가장 큰 키에프호(3만8천톤)와 레닌그라드호(1만8천톤)등 2척의 항공모함및 소해정등 70~80척의 군함들이 참가했다。

약10만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번 발트해 기동훈련중 최대규모의 상륙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 훈련은 소련관영 타스통신이『반사회주의적 반소적 집단』이라고 비난한 폴란드자유노조의 제1차 전국대회 1단계회의가 끝난지 불과 하룻만에 이뤄졌다는점에서 크게 주목되고있다。

蘇, 機動訓鍊연장

12일限 豫定넘겨

【모스크바12日UPI=聯合】폴란드국경부근에서 실시중인 소련의 대규모군사기동훈련은 12일 끝날예정으로 되어있으나 이 훈련이 예정대로 종료될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소련국영TV는 지난11일 저녁 이번 군사훈련실시지역인 白러시아~폴란드사이의 모처에서 찍은 소련국방상드미트리·우스티노프의 모습과 발트海에서의 해군기동함대 훈련광경을 방영했다。

"自衛隊존재는 合憲的이다"

日公明黨、종래路線서「豫告된轉換」

平和憲法개정 가능성높여

防衛力증강바라는 美에 고무적

【東京AP=聯合】일본의 제2야당인 公明黨은 최근지난20년간지켜온 당의 방침을 돌연히 변경, 일본자위대의 존재는 완전히 합헌적인것이라고 결정했다。

公明黨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자위대가 지난50년대초부터 존립해왔다는 현실을 감안할때 좀 때늦은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公明黨의 결정은 민감하고도 잠재적 폭발가능성을 지닌 일본의 방위문제를 둘러싸고 일본내정치세력판도의 급격한 재편을 초래하게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公明黨은 지난20년간 日本제1야당인 社會黨과 共産黨에 동조,자위대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었다。

公明黨의 태도변화는 하원인 중의원에서 이미 온건노선을 택하고있는 民社黨의석 32석과 집권자민당의 2백87석등 자위대지지세력에다가 公明黨의 34석을추가, 총3백53석을 이루게 됨으로써 社會黨1백4석, 共産黨 29석의 연합세력에 대해 2백20석차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오게 되었다。중의원의석은 총 5백11석이며 이가운데 5석은 비어있고 나머지20석은 군소정당이 차지하고있으나 公明黨의 노선변경에 따르는 정치적여파는 자못 클것으로 예상된다。

公明黨의 변신은 또 소련군사력의 아시아 진출증가에 대응,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일본방위비지출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세력을 고무하게 될것으로 보인다。정치평론가들은일본 불교평신도단체인 創價學會를 모체로 하고있는 公明黨이 이처럼 노선을 수정하게 된데에는 당의 기반을 넓히고 사회각계각층으로 지지를 확장하자는 데 의도를 두고있다고 분석한다。

일본평화헌법9조의「전쟁금지」조항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패전의 상처가 아물지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군국주의가 부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못박은 것이었다。

◇다께이리委員長

뒤이어 49년 중국본토가 적화되고 이듬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북괴군이 남침을 감행했을때도 일본은 이 헌법9조때문에 비무장상태로 남아있었다。더글러스·맥아더장군은 일본경비대창설을 승인했으며 경비대는 일본자위대로 발전됐다。

그뒤 일본이 자위권을갖고있다는게 일본의 통설로 돼왔으나 많은 일본인들은 헌법규정대로 전쟁이 불법적인것이라면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위대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해왔다。

그런가하면 자민당내 인사들을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위대의 모호한위치와 성격에 이의를내세우며 평화헌법을개정, 실제적인 육·해·공군을 보유할것을 원하고있다。

지금까지 일본 야당들은 힘을합해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 3분의2선을 확보하는 것을 막아왔으나 이번 公明黨의 전향으로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독자적인 방위력확립을 주장하는 일본인과 아시아지역방위에 일본이 더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 레이건행정부관리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에게 고무적인 현상이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2차대전당시 日本에의해 정복당한 경험이있는 국가들에게 그리 고무적인 현상일수만은 없다。

일본군국주의의 희생자인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이 자위에 충분한 방위력을 갖춘다는데는 이의를 갖고있지 않지만 군국주의부활을 우려하고 있다。【존·로더릭記】

宮殿化하는 白堊館

레이건登場후「帝王의格式」되살아나

◇백악관 무도장에서 춤추는 레이건부처。레이건 등장이후 백악관에는「帝王의格式」이 되살아났다。

지나치게 검소하다못해 촌스럽고 권위가 없어보이기까지한다고 비난을들었던 카터의시대가 가고 레이건의시대가 도래한 백악관에 제왕의 격식을갖춘 여러가지 화려한 치장과형식이 부활되고있다。

조지아州 플레인즈 읍에서 자라나 몇몇전임 대통령들이 일신의 안락만을위해 정부자금을 마구 낭비하고 거드름을피우는데 반발하는 분위기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카터대통령은 간소함과 내핍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는 한때 해병대밴드로 하여금 대통령의도착과 출발시 연주하는『대통령찬가』대신 어빙·벌린의『언제나』란는 곡을 연주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같은 희생에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대통령이 보다 형식을 갖추고 대통령으로서 보다 격식과 의식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카터 대통령은2년간의 잔여임기동안 대통령으로서의 특권 몇가지를 부활시키고 해병대 군악대에게 다시 예전처럼『대통령찬가』를 연주하도록 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출현이후 아직까지 그들의 富의 과시에 대한 눈에 띄는 비난은없다。취임식을 장식했던 번쩍이는 보석들과 값비싼 밍크털코트등이 물의를 야기시키기는 했지만。

꽃향기가득…華麗한 분위기
돈많은 舊友초청 晩餐빈번

카터때의 儉素의식 모습감춰

레이건 대통령부처는 지금까지 삶을 즐기는 생활을 해왔으며 그의 보좌관들 또한 그 주변장식을 모두고급으로 감싸려하고 있다。그 증거들은 어디서나 찾아볼수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직후 백악관서쪽 문에서 공식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비무장해병대보초들에게 군인으로서 완전 정장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사상최초로 대통령문장을 문위에 달도록했다。

백악관 고위보좌관들 또한 출퇴근시 운전사가딸린 리무진을 사용하게 됐다。

백악관 도처에 향기넘치는 신선한 꽃들이 가득찼고 레이건일가가 거처하는 곳에는 각종 난초들이 어우러져 백악관의 화려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레이건부처는 캘리포니아州 산타바바라근교에있는 자신들의 목장에 있을때는 서부식 의복과 생활을 하지만 이같은 서부스타일을 백악관에까지 옮겨오지는않아 백악관의 남쪽 잔디밭에서 바베큐파티를 하는예는 없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시절에 같이 지냈던 돈많은친구들과 아직도 가깝게 지내고있으며 이들을 종종백악관에 초대하기도 한다。【워싱턴=UPI】

海外토픽

非휘발油 차량競走

★美대륙橫斷… 내달17일

식물유·동물유·수소·전기·목탄·메탄올등 휘발유가 아닌 연료를사용、미대륙을 횡단하는 자동차경기가 1백60여명의 선수가 출전한가운데 다음달 17일 미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우주시대를 맞아 연료를 석유에 의존하는것을 지양하고 대체에너지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컴퓨터회사사장인 조·셰퍼드씨(37)가 주최하는 이경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승점인 로체스터로출발하기전 네바다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뉴욕등 여러곳에서 시위행렬을 벌일 예정이다。【로체스터(美뉴욕州)=UPI】

MUTUAL LIFE

금번 Mutual Life에서 일하게 된 박시조입니다
Mutual Life보험회사는 카나다에서 individual life부분으로는 가장 많은 보험가입자를 흡수한 상호보험회사로서 11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카나다자본의 굴지의 대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Mutual Life는 바로 보험가입자 여러분의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 모두 같은 비율로 이익을 분배받으며 상호보험만이 갖는 특수한 장점들은 교민여러분의 미래의 설계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박 시 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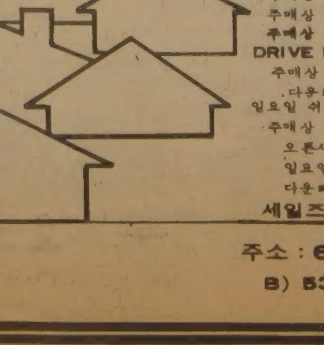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은퇴보험　● 구룹보험
● BUSINESS LIFE보험
● R. R. S. P. (세금공제 은퇴저축)
● INCOME EVERAGING ANNUITY

주 소:
251 CONSMER RD.
(세퍼드×빅토리아 팍)
전 화:
494-3800(B), 481-8835(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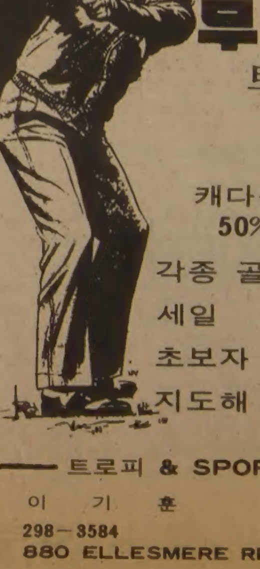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建國大 光云工 中央大 8強에 合流

光云 中央
金學哲결승골 清州제압 2—1
자살골演出한 嶺大꺾고 1—0

大學蹴球선수권大會

建大 鄭京洙 슛성공 檀大누르고 1—0

【仁川=李鍾南기자】中央大、光云工大、建國大가 제35회 대학축구 선수권대회에서 8강에 합류했다。中央大는 12일 仁川공설운동장에서열린 대회3일째 清州大와의 2회전에서 金學哲이 후반25분 결승골을 터뜨려 2—1로 승리하고 光云工大와 준준결승전을 벌인다。

光云工大는 후반9분 嶺東이 오른쪽에서 코너킥한볼을 嶺南大 HB金東振이 머리로 처리한다게 자기팀골문으로 들어가는 자살골 해프닝에 의해 1—0으로 이겼다。

建國大는 후반32분 朴晶一의 도움을 받은 鄭京洙의 슛성공으로 檀國大를 1—0으로 꺾고 8강에서 서울大와 맞선다。

전날 慶熙大는 白鍾哲의 2골、俞鍾完의 1골로 仁川體專을 3—1로 제압하고 8강에 올라 國民大—關東大승자와 겨룬다。

이번대회에서 中央大는 1회전에 忠南大를 2—0으로 꺾고 이날도 清州大를 2—1로 이겨 忠清팀 킬러가 됐다。

清州大는 전반5분 柳洵烈이 슛한볼을 中大 GK 河哲鎬가 처내자 흘러나온 볼을 白錫周가 강슛、선제골을 올렸다。

1점을 뒤진 中大는 고전타가 전반 33분 清州大 수비가 자기진영 문전에서 걷어낸 볼을 崔德柱가 논스톱으로 강슛을 터뜨려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25분 中大는 李鉉澤이 센터링한볼을 清州수비 安丙國이 헤딩으로 걷어내자 볼을 金學哲이 슛、2—1로 전세를 뒤집었다。

두 팀이 기록한 3골은 모두 수비수가 어설프게 처리하다 터진 골들이다。

◇제3일전적
광운공대 1 (0—0, 1—0) 0 영남대학
중앙대학 2 (1—1, 1—0) 1 청주대학
건국대학 1 (0—0, 1—0) 0 단국대학

◇제2일전적
▲2회전
경희대학 3 (2—0, 1—1) 1 인천체전
단국대 (1승1패) 000 000 000 — 0
연세대 (1승1무) 000 001 00× — 1

◇金昌一의 攻擊전환 韓一銀의 맹렬한 공격을 住宅銀FB金昌一㊉이 가로채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 전환시키고있다。

韓一·宅銀비겨 0—0
실업축구 각각中位圈마크

실업축구 후기리그 7일째 경기가 12일 효창운동장서 속행、韓一銀行과 住宅銀行은 접전끝에 0—0으로 비겼다。 韓一銀은 3승2무3패、住宅銀은 3승2무 2패를기록하여 각각중위권을 마크하고있다。 韓一銀은 전반서 맹렬한 공세를펼쳐 12분에 선제골의 기회를 잡았으나 볼운으로 결실을 맺지못했다。 FW李道基가 강슛한 볼이 住宅銀 골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와 柳鍾澤이 재차 슛을했으나 또다시 볼이 골포스트를 강타하고빗나갔다。

전반서 여러차례 실점위기를 벗어난 住宅銀은 후반에 접어들어 활기있는 공격을펼쳐 FW朴彩和등이 슛을잇달아날리며 분투、전반의열세를 뒤집었다。이경기서 韓一銀은 슛9개、住宅銀은 4개의 슛을 기록했다。

◇제7일전적
주택은 0—0 한일은
(3승2무2패) (3승2무3패)

한국選手들 快調의 스타트
孫甲道·金義坤·柳寅卓 첫승리
유고 世界自由型 레슬링選手權개막

【스코피에(유고) 11日聯=綜】 81년도세계자유형레슬링선수권대회가 11일 유고의남부도시 스코피에에서 개막돼 한국의 孫甲道 金義坤 柳寅卓이 각각 서전을 장식했다。

국제아마추어 레슬링연맹(FILA)이 벌점제도대신에 처음으로 승점제도를 도입한 이날 경기에서 48kg급 A조에 출전한 孫甲道는 나이지리아의 아모스·오소를판정으로 제압、만점인 4점을 얻었으며 57kg급 B조에 소속한 金義坤도 이란의 라소울·호세이미에게 폴승을 거두어 4점만점을 획득、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한편 65kg급에 출전한 유망주 柳寅卓역시 첫승리를 거두었다。

FILA는 이 대회에서처음으로 새로운 규정을도입、각회전에서 승점을 주어 각조의 최고득점자끼리 우승、준우승을 다투도록했으며 수비위주의 경기를 억제하기위해 3분3회전의 경기시간을 3분2회전으로 변경했다。

이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는 10명의 올림픽선수권자를 보유한 蘇聯이며 한국과 日本이 일부체급에서 금메달을 노리고있다。

여자 國際하키審判 申正姬양 資格획득

한국여자하키사상 처음으로 여자국제심판이 탄생했다。 여자국제심판 제1호로 탄생된 申正姬양(26)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日本교오또(京都)市에서 벌어진 제1회 아시아여자 하키선수권대회기간중에 실시한 실기테스트에서 무난히 통과、국제심판자격을 얻게된것이다。

국제여자하키연맹(IFWHA) 아일린·굿더부회장겸 심판부장은 11일 『申正姬양은 말레이지아—싱가포르 대전등 4게임의 실기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국제심판자격을 정식으로 부여하며 심판등급(A·B급) 신청을하면 정식으로 급수를 부여하겠다』고 대한하키협회에 알려왔다。

申양은 京畿道출신으로 72년 平澤女中에 입학하면서 崔虎奎교사의 눈에 띄어 하키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平澤女綜高를 거쳐 80년 仁川體專을 졸업했다。

印度、A組2位 메르데카 축구豫選3次

【쿠알라룸푸르11日AP=聯】 印度는 11일 속행된 메르데카축구 A조예선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격파、2승1무1패의 전적으로 이날현재 日本에이어 A조 2위를 달리고있다。

◇전적
인도 1—0 인도네시아

世界J 男子배구
한국、蘇聯에 完敗 3—0
身長열세·攻擊난조 苦戰
오늘 中共과 3·4位 결정전

【스프링필드(콜로라도)=聯】 한국남자주니어배구팀은 12일상오(이하한국시간) 이곳 空士체육관서 벌어진 제2회 세계주니어남자배구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지난번대회우승팀 소련에 3—0으로 완패、13일상오9시 中共과 3·4위 결정전을 갖게됐다。

文濟冠·李鍾敬·鄭龍河·朴炯用·李萬根·李載善을 기용한 한국은 이날 평균신장이 1m98cm로 우리보다 10cm가량 큰 소련의 블로킹을 뚫지못해 고전끝에 단 45분만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신장과체력에서 열세를 면치못하는데다 공격난조로 선수들이 위축돼 도합 21개의 범실을 범했다。

한편 브라질은 강호 중공을 3—2로 어렵게 따돌리고 소련과 13일 상오11시 패권을 다투게 됐다。

그런데 한국주니어남자배구팀이 중공과 대결하는것은 13일의 세계선수권 3、4위전이 처음인 셈인데 한국과 마찬가지로 브라질에 3—2로 패배하여 결과를 낙관할수는 없으나 한번 겨루어볼만한 상대라고 우리팀관계자는조심스런전망을하고있다。

◇준결승
소련 3 (15—3, 15—4, 15—5) 0 한국
브라질 3 (15—8, 7—15, 15—13, 15—2, 10—15) 2 중공

6살외아들 家出보름
서울上鳳洞 30代청년등 2명에 끌려가

6살 남자 어린이가 집을 나간지 보름이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월29일 하오8시10분께 서울 東大門區上鳳1洞 184 앞길에서 이동네 황광준씨(45·철공소직공·上鳳1洞279의10)의 외아들 용석군(6)이 30대청년 1명과 중학생으로보이는 2명에게 끌려나간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것。

이동네 박대중군(12·中和국교4년)에의하면 이날 30대청년1명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2명이 용석군을 上鳳洞 서울우유 보급소쪽으로 데려와달라는 부탁、용석군을 이들에게 데리고갔다는것。

박군은 다시 봉화산까지범인들과 같이갔다가 30대범인이 주는 3만5천원을 받았다가 다시 2만5천원을 빼앗겼다는것。

경찰은 유괴사건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보고 수사를벌이는한편 사라진후 범인들로부터연락이 전혀없으며 용석군의부모가 셋방에 살정도로가난하여 목격자박군이 횡설수설하고있어 단순실종으로도보고 시내 아동보호소등지를대상으로수색을하고있다。

鳥獸類포획 허가 도시·平野에편중

【大邱=聯】 농작물피해를줄이기위한 조수류 포획허가가 피해가 큰 산간지역보다 도시와 평야지역등에편중돼 있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있다。

12일 경북도에따르면 지난 8월 농산물의 조수류피해를 줄이기위해 총포류에의한 포획허가를 내주기 시작한이래 지금까지 공기총 95정、엽총 26정등 모두 1백21건을 허가했다는것。

그러나 지역별 허가상황은 金泉시와 榮豊군이 28건、尙州군 24건、慶州시와 月城군11건、龜尾시 2건、大邱근교慶山·達城·星州23건등도시와 평야지역에 몰려있어 참새는 물론 산돼지·노루등 조수류의 피해가 많은 靑松·英陽·奉化등 산간지역에는 단1건도 없는 실정이다。

유리 닦다 女敎師추락
서울聖水國校서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일을 맡기지않으려고 대신 3층교실 유리창을 닦던 여교사가 추락、생명이 위독하다。

9일하오2시30분께 서울 城東區聖水2街277의32 聖水국민학교(교장 鄭太永·63) 5학년4반 담임 辛英順교사(40·女)가 유리창을 닦다 4m아래2층베란다에추락、뒷머리를 크게다쳐 부근 한라병원에 옮겨져 치료를받고있으나 중태다。

이날 辛교사는 하오2시10분 6교시방과후 12명의 어린이들과함께교실청소를했는데 어린이들이 닦기가힘든교실뒤편 유리창의바깥쪽 청소를 손수맡았었다。

秋季 대학야구
高大、漢大와 선두
韓英俊등홈런 東亞에 大勝 12—3

高麗大가 韓英俊 金貞洙의 1회말 홈런등 초반 맹타로 東亞大를 녹·아웃시키고 추계대학야구리그전 A조서 2승을 기록、漢陽大와 공동선두에 나섰다。

高大는 12일 仁川공설운동장서 열린 대회 이틀째 경기서 좌완 에이스 楊相汶、1년생 우완 宣銅烈의 역투로 東亞大 타자들을 압도하며 1회말 1년생 선두1번 韓英俊과 4번 金貞洙가 東亞 선발 金在烈을 홈런으로 두들겨 2점을 선제하고 2회말 집중5안타로 4점을 추가、대세를 결정지어 12—3으로 완승했다。

東亞大가 6회초 金漢兆의 2점 홈런으로 추격하자 高大는 8회초 韓英俊의 두번째 솔로·호머를 비롯한 집중포화로 東亞大 마운드를 짓밟았다。

漢陽大는 吳大錫(2회)鄭宗鉉(6회) 金一權(9회)등의 3발의 홈런을 포함、11안타로 圓光大의 元雄載、趙鎭衍 두투수를 공략、8—3으로 낙승했다。

仁荷大는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B조경기서 1년생 선두타자 梁厚承의 8회초2점 홈런、宋慶燮의 6회초 솔로·호머등으로 中央大를 4—0으로 누르고 1승1무를 기록했다。

仁荷大의 장신 우완 吳泳日(1m85)은 9회동안 中央大 33타자를 4안타 5四死球로 완봉했다。

嶺南大는 3회초 폭투로 慶熙大에 선제점을 허용、5회말 慶熙유격수의 실책과 연속2안타로 간신히 동점을 얻고 9회말1사후 4번 金勛甲의 좌중월 결승·솔로 호머로 2—1의 힘겨운 역전승을 거두었다。

대학리그 이틀동안 10게임에서 신입생 韓英俊(高大)·梁厚承(인하대)등의 홈런을 비롯해 모두 14개의 홈런이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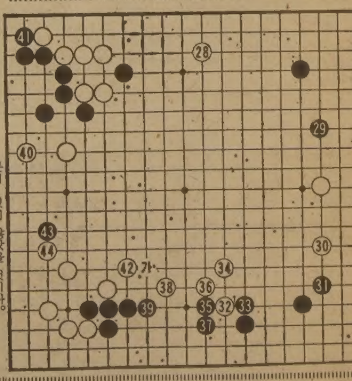
◇나인의 歡迎 仁荷大와 中央大의 대전 6회초 仁荷의 9번 宋慶燮이 솔로·호머를 날리고 홈을 밟고있다。

◇제2일전적
▲A조
한양대 (2승) 010 001 204 — 8
원광대 (1패) 021 000 000 — 3
▲홈런=吳大錫(2회)鄭宗鉉(6회)金一權(9회·이상한양)
고려대 (2승) 240 002 04× — 12
동아대 (1승1패) 000 002 100 — 3
▲홈런=韓英俊(1、8회) 金貞洙(1회·이상고려) 金漢兆(6회·2점·동아)
▲B조
경희대 (1패) 001 000 000 — 1
영남대 (1승1패) 000 010 001 — 2
▲홈런=金勛甲(9회·영남)
인하대 (1승1무) 001 001 020 — 4
중앙대 (2패) 000 000 000 — 0
▲홈런=宋慶燮(6회)梁厚承(8회·2점·이상인하)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2譜 28～44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 徐奉洙
黑(6段) 姜哲民



본인의 감개무량한 회고담처럼 『세월은 화살』같아서、어느새 기계의 준원로급이된 姜6단은 釜山태생으로 不惑의나이인 40세。승단은 늦은편이지만 棋歷은 화려하다。66년제4회 青少年盃에 우승하면서부터 국내모든타이틀전본선에 골고루 참가하여 그의 특징인 중후하고 웅대한 棋風으로 팬들을 매혹시키며 最高位戰에서는 제11期우승、제12期준우승、제19期國手戰에서도 준우승을했다。

名人戰은 제1、2期와 4、5、6期에 본선멤버로 활약하다가 아깝게 탈락、이제 7년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별볼일없는 사람이 어쩌다 名人戰에 올라와 고생을 사서 하게되었다』면서 지극히 겸손한 말을 하지만 내심으로 오랜만에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그렇고 이바둑은 좌상귀 정석이후 白28까지 상호간 配石이 각기분산된 꼴이어서 장차 혼전이 일어날기미가 보였다。그러나 黑29、31로써 姜6단은 진용을 짜임새있게 다듬어놓았다。

左邊에 때이른 急戰조짐

그런데 이다음 예상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원래 실리에 알뜰하다는 평을 듣는 徐7단이 (실상 본인은 그런평을 달지도 않다고 일축해버리지만)갑자기 白32이하 42로、姜6단의 능기인 대세력작전을 역용한것이다。

도중 黑35로 「가」에 달려나가지않은 보수적수법이 약간문제였던 모양이지만 좌우간 黑43에 침입하여 급전의 조짐이다。

白44의 강수를보더니 姜6단은 『곽잡을 요량이군』하고、『설마』하는 徐7단의 대구를 귀흘려 넘기면서 생각에 잠겼다。이른 승부처를 맞이한 셈이다。【一凡】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3361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교민 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늘한 바람이 옷깃에 스며들어 바뀌어 가는 계절을 실감케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바뀌는 계절에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이민의 삶이 그저 막연히 저편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때인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즈음 우리 양로원 건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양로원 건립에 첫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저, 여기에 작은 모임을 마련했읍니다.

이번 자선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중진화가 여러분들이 우리 건립위의 적극호응하여 그분들의 정열과 정성이 담긴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이국의 바쁜 생활 뒷그늘에 가리워 자칫하면 소외되기 쉬운 외로운 노인분들이 계실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노후의 삶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따뜻이 감싸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되여 집니다.

교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참여는 삭막한 이민의 삶에 뜻깊은 사랑과 회망으로 이어지리라 굳게 믿읍니다.

끝으로, 이번 자선 전시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분 그리고 후원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 소 :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휙셔화랑)
시 간 : 10월8일(목) 9일(금) :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 2시～ 〃
〃 12일(월) 13일(화) : 〃 6시～ 〃

양로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일동

목사안수식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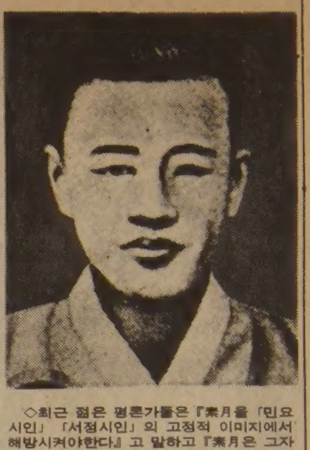
카나다 장로회 동부노회는 〈민영기〉목사 후보생의 안수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그 식전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 : 1981년9월22일(화) 오후7시30분
장소 : 동부한인장로교회
251 CHRISTIE ST. TOR.

카나다 장로회 동부노회
동부 장로교회 당회

「素月 민요시인」은 잘못 形而上學의 詩人이 옳다

沈明鎬교수 「素月再考」서 새로운 評價


◇최근 젊은 평론가들은 『素月을 「민요시인」 「서정시인」의 고정적 이미지에서 해방시켜야한다』고 말하고 『素月은 그자신도 생전에 민요시인으로 불리는것을 싫어했다』고 밝히고있어 주의를끌고있다。

「한국의 國民詩人」으로 일러지는 金素月은 흔히 民謠詩人, 抒情詩人의 이미지만으로 그려져왔다. 素月을 연구, 평가하는 많은평론가들은 素月의 詩를 「서정성」「民謠調」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평가해 왔다. 실제로 대표시집 「진달래 꽃」에 실린 詩의 반수가량은 애정, 향수, 孤寂感과 같이 누구에게나 친근할 수 있는 감정을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같은 感傷的인 詩作品대문에 素月의 詩는 평생 그같은 감상시, 서정시만을 남기고 간 시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몇몇의 젊은평론가들은 독자들에게 素月이남긴 또다른성질의 詩를 소개하면서 素月은 서정시 이외에도 쉽게 이해하기어려운 形而上學的인 主題를다룬 詩作品을 많이남긴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있어 注意를 끌고있다. 문학평론가 沈明鎬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素月再考」(「韓國學報」24집)에서 『素月은 스스로 民謠詩人이라고 불리는것을 싫어하고 기피했으며, 素月 타계후 많은 평론가들이 素月의 詩의 한特性만을 강조한 나머지 素月은 스스로 싫어하던 「민요시인」「서정시인」으로 가두어져버렸다』고 말하고 『이제는 素月자신이 바랐던대로 그 편견과 선입관념의 이미지에서 素月을 해방시켜주어야 할때』라고 평한다.

文壇一話

素月의 시집 「진달래 꽃」에는 총1백26편의 詩가 실려있다. 시집 「진달래 꽃」에 수록되지 않고 여러가지 잡지에실려 남아있는詩도 70여편에이르러 그가쓴詩는모두 2백여편에 이른다. 그의 2백여편의 시가운데 절반분량에 해당하는 90여편~1백여편의 詩는 어느 독자나 쉽게 이해할 수있는 감상적·서정적인 소재와 형식으로 엮어져 있다. 나머지 반수가량의 詩는 시인의 主觀的인 경험과 理智的인 경험을 주제로해서 한두번 읽어서는 즉각 이해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

「山有花」 宇宙의뜻 다뤄

沈明鎬씨는 素月의 서정시, 민요시들을 「軟體詩」로, 이지적 경험을 주제로 한 시들을 「硬體詩」로 부르고 『素月의 詩중에서 「軟體詩」만이 독자들에게 호소되고, 素月을 「민요시인」「서정시인」으로 못박은 그릇된 견해의 始初는 金億이 素月타계 1년후 素月을 추모하는 뜻에서 펴낸 「素月 詩抄」에서쓴 序言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다.

金億은 「素月 詩抄」서언에서 『素月이 자신은 어떤이유인지는 모르거니와 自己를 민요시인으로 부르는것을 싫어하였으나…그러나 사실은 그는 어디까지나 民謠形에 남보다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었던 것이외다』라고 썼다.

그러나 沈교수는 『시집 「진달래 꽃」에 실린 모든 시작품과 시집에 수록되지않은시작품가운데 金億이 이야기한 民謠形의 전통적인 3·4調와 4·4調에 바탕을둔 詩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詩는 「民謠形」이라고는 말할수없는 7·5調와 아니면 自由形의 형식으로 쓰어진것을 볼수있다』고 분석한다.

「合掌」「저녁때」등도 精神세계 昇華 한特性만다룬 偏見 마땅히고쳐야

素月의 서정시, 민요시의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시가운데서도 「山有花」「접동새」「진달래 꽃」등은 단순히 민요시라든가 서정시로 평가할수 없는 방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 몇몇 평론가들에의해 「가적적인 完全品」「天才的인 소질」로 평가되는 「山有花」는 간단한 詩型을 빌어 우주전체를 감싸고 도는 진리를 다루고 있는것으로, 그 깊이와 넓이가 방대해서 헤아리기어려운 테마를 잡고있어 素月의 으뜸가는 작품으로 꼽힌다.

沈교수는 『서정시로 그릇소개된 「山有花」는 실상 形而上學的 주제를 다룬 놀라운 작품』이라고 평하고, 그밖에 「진달래꽃」에실린 「合掌」「默念」「저녁때」「늘놀이」「여름의달밤」「悅樂」「찬저녁」등의 시를 「山有花」와 같이 정신적인 세계를 주제로 삼은 형이상학적인 詩의 대표작으로 꼽고있다.

「合掌」은 『…燈불 빛에 거라는 해적여라, 희미한 하늘便에/고히 밝은 그림자 아득이고/퍽도 가까이 풀밭에서 이슬이 번쩍여라/밤은 마악 깊어 사방은 고요한데/아마즉 말도 안하고 더 안가고/길 가에 우두커니 눈 감고 마주 서서/…먼먼 山, 山 절의 절鐘소래 달빛은 지새여라…』로 이어지는 것으로 신성한 정신적인 승화를 詩題로 삼고 있다. 素月의 詩에는 이 같은 류의 정신의 悅樂을 주제로 한 詩가 자주 나타나고 있어, 素月 정신세계에 깊숙이 몰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인 기쁨을 形而上學的 技法으로 썼다는 것을 알수 있다.

沈교수는 『素月의 이같은 詩들이 보여주는 詩想의깊이와 詩的 기교는 거의 絶頂에 다다른 것이며, 이깊이와 기교를 대할때 素月에게 민요시인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릇된것인가를 깨닫게하는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素月이 자기자신을 「민요시인」이라고 불리는것을 극히싫어했다는 그이유를 金億은미처 이해하지 못했으나 後代사람들은 이제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禹桂淑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㊻

白凡과 尤史

白凡 還國후처음對面 眞心으로 尊敬
尤史 Y時節부터만나던 가까운 선배
包容力 큰 革命家對 판이한 性格의 學者型

◆해방후 李承晩박사와 함께 3巨頭였던 白凡 金九선생(上)과 尤史 金奎植박사。白凡은 애국革命家、尤史는 學者타입이었다。

日帝에 항거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合力하던 선배, 동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온다. 여든이 넘도록 殘命을 지탱하며 영광된 조국의 미래를 기대하는 나로서는 깊은 交遊가 있었던 옛동지들이 그립지 않을수없다. 더우기 非命에 간 분들이 있음에는 더 할말이 있겠는가.

이들중 항상 腦裡를 떠나지 않는 분은 해방후 3巨頭로 통하던 李承晩박사, 白凡 金九선생, 尤史 金奎植박사다. 白凡은 내가 歐美委員部에 있을때 臨政과의 연락관계로 간접적으로 알고있었으나 직접 대면하기는 해방후 臨政要人과 함께 還國하면서이다. 白凡은 무한한 包容力과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同志愛를 느끼게하는 大人이었다. 나는 그분을 생각할때마다 옛中國의 劉備와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고있다. 그같은 包容力과 동지애, 순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엄하고 위엄있는 성품, 불같은 조국애가 없었다면 受難의 異域에서 臨政30년을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티하나없는 순수애국의 신념으로 일생을 관철한 巨木이었다. 白凡의 無私無慾을 얘기하지만 白凡을 알지못하는 사람은 이표현이 실감나지 않을것이다. 특히 오늘의 정치가 어지러울때마다 物慾을 벗어던진 脫俗한 그분의 모습이 더욱 아쉬워진다. 그러나 白凡은 혁명투사이지 탁월한 정치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방후 외로운길을 걸어야했던 白凡의 路程은 역시 독립투쟁과 정치활동이 그 內質에 있어 判異한 세계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大韓民國의 創業을 목전에두고 그분이 單政을 반대, 공산주의의 南北協商이란 假面劇에 잠시 시선을 돌린것은 아무리 되씹어 생각해도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統一된 조국을 熱望했는가를 생각하면 숙연해지기도 한다. 白凡선생이 허망한 南北協商길에 올랐을때 李承晩박사의 어두웠던 표정이 지금도 떠오른다. 만약 그때 單政이라도 建國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쯤 가있을까. 분명히 東歐의 폴란드 루마니아와같은 형편이 되었을것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그러나 李박사는 白凡을 한번도 비방하지 않았고 아끼며 사랑했다. 李박사처럼 白凡의 애국심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 두분이 만나면 白凡은 李박사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李박사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을 했으나 2~3일뒤에는 京橋莊쪽에서 다른얘기가 들렸다. 이는 그분뒤에 趙琬九, 嚴恒燮이 있어 白凡의 뜻을 반대로 돌렸기 때문이다. 白凡이 암살되었을때 항간에서는 여러浪說이 있었지만 나는 白凡암살과 李박사는 전혀 관계없음을 斷言한다. 白凡이 돌아가셨을때 그렇게 비통해하던 老대통령의 모습은 人間事그대로였다.

尤史 金奎植박사는 성격과 才能 그리고 人格에 있어 白凡과 판이했다. 金박사는 臨政의 副主席으로 白凡과 같이 귀국했지만 白凡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李박사를 노골적으로 시기하였다.

그는 차라리 정치와 거리가먼 학자스타일로 신경질적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中國뿐 아니라 英國에서도 알아주는 英文學의 大家였으며 中國에서도 臨政副主席보다 대학교수로서 더 저명한 편이었다. 그러한 전공분야의 탁월성이 그에게 지나친 自負心을 안겨주었는지 모르나 李박사, 白凡, 그리고 省齋 李始榮선생등과의 대화도중에도 뜻에 맞지 않으면 물었던 파이프를 내던지는등 원만을 모르는 신경질이었다. 그는 내가 어렸을때부터 YMCA등에서 자주만난 선배로서 개인적친분은 가까운 처지였다. 내가 尤史와 再合한 것은 워싱턴에서 臨政의 歐美委員部에 있을때였다.

그는 蔣介石총통의 親書를 가지고 美國에 왔었다. 그의 임무는 우리교포와 華僑가 단합하여 日本의 침략근성을 규탄하고 韓·中두민족의 평화정신을 고취하는것이었다.

나는 金박사와함께 3개월간 美國곳곳을돌며 韓·中·美3國의 친목회등을갖고 연설을 하곤했다. 당시 駐美中國대사는 꽤나 유명한 알프레드·施박사였는데 천성이 오만한 그는 李承晩박사를 제외한 우리교포를 白眼視하는 습성이 있었다.

나는 金박사가 그러한 알프레드·施박사를 몇마디의 유창한 영어로 누그러뜨리는것을 보고 『과연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한적이 있다.

따라서 나는 해방이전과 이후, 특히 하지중장의 單政반대에 꼭둑각시로 나섰던 그의 정치行蹟과 스타일을 회고할생각을 하진않는다. 그의 정치적 노선과 행적을 생각할 때마다 불유쾌해지며 따라서 조용히 가지고 있는 그와의 交分이 어색해지기 때문이다.

文教部권한 대폭이양

高校설립허가등 市道教委에넘겨

문교부는 현재 문교부장관에게 집중돼있는 인사및학교설립에관한 권한을 하급교육기관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11일 문교부관계자는 『교육자치제실시에도 불구하고 문교행정에 관한 권한이 문교부에 너무 집중돼있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권한이양작업을 통해 일선교육기관이 책임을갖고 자치능력을키울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이관계자에따르면 현재 문교장관의 인사권중 ▲교육구청장, 교육위원회과장인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관내 전보권은 市·道교육감에게 이양하고 ▲법인설립허가권중 고등학교법인설립허가권을해당시·도교육감에 주는한편 ▲학교수업료의 급지 조정권도 교육감에게 주어진다.

한편 문교부는 각시·도교육감이 갖고있는 권한중에서 ▲공립유치원과 초·중·고교교장의 관내전보와 휴·복직에관한 권한을 각시·군교육장에게 이양하고 ▲중학교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도교육장에게 넘기기로했다.

次男 茶禮참석안해 7旬노인 自殺기도

12일 상오 11시40분께서울城北區 下月谷3洞 82의96 정읍선씨(77)집 안방에서 정씨가 분가한 차남 동호씨(43·城北區 上月谷洞)가 차례에 참석치 않았다고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 것을 큰며느리 이은진씨(52)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정씨는 10년전 큰아들과 사별한 며느리 이씨와 손자2명등과함께 살아왔는데 평소 차남부부가 집에도 자주 들르지 않아 섭섭해왔는데 이날 추석차례에 참석하지않자 이를비관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것.

長城郡 儒林5千3百여명 各界에

同姓同本不婚 진정

【長城】전남 長城郡 유림대표 羅夢聖씨등 5천3백여유림들은 12일 동성동본혼인을 절대반대한다는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유림대표들은 진정서에서 『정부가 동성동본 금혼법을 발전저해 요인의하나로생각, 이를 폐지할것을 검토하고있는 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고유윤리도덕을 스스로 짓밟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파괴하여 동물적사회로몰아가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 동법의 폐지검토를 즉시 중지할것을 요구하며 이의관철을위해 전유림들은 총궐기할것을 다짐했다.

철자법틀려 값어치잃어

晋州박물관 所藏品 설명서 고쳐야

얼마전 남해안을 여행하던중 晋州박물관에 들를 기회가 있었다. 우정 최낙선 선생이 사재를 들여세운 이박물관은 晋州가 내세울수있는 자랑거리의 하나라하겠다. 그런데 흠으로 보이는 것은 소장품 옆에 첨부한 설명서다. 영역된 철자들의 상당수가 틀려있었다.

예를들면 신라도금장도를 Gilding Knif로 기재, e를 빠뜨려 놓았고 무쇠화로(Iron brazier)에서 Iron의 I자를 L자로, 또 양금에서 Lyre의 Y자를 I자로쓴 것등 잘못된것이 많았다. 아무리 귀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그값어치를 제대로 발휘하지못하리라 생각할때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란다. 【정남희·서울城北區鐘岩洞83 14통2반】

文化短信

5次月例발표회 國際政治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제5차 월례연구발표회가 19일 상오 9시30분 全南大 인문사회과학관에서 열린다. 발표주제는 ▲朴河一교수(全南大)의 「미·중공협력관계와 그전망」▲吳洙烈교수(조선대)의 「중공의 동아제아정책과 한반도」▲安清市교수(서울大)의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비교고찰」.

古典硏究 심포지엄

蘭樓학회주최 제10회 한국고전연구심포지엄이 19일 상오10시 문예진흥원강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朴齋家의 사상」(金龍德)「楚亭의 사상사적 위치」(朴忠錫)「進北學議를 통하여 본 朴齋家의 농업론」(李春寧)「문학사적 측면에서 본 貞蕤集」(鄭玉子).

主婦위한 연극교실

「연극교실」의 워크숍 발표회가 15일하오3시, 7시 明洞 엘칸토 예술극장에서열린다. 공연작품은 빈센트·밀레이作 林知炫(주부) 연출의 「끝없는 아리아」.

주부인 閔華植 金明淑 尹順信 張福植 林知炫가 인간의 속성과 욕망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이 가져다 주는 삶의 붕괴를 찬란하게 연기해낸다.

가정법률 상담소서 독일男女平等 특강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창립25주년기념으로 15일 하오2시 여성백인회관 강당에서 「독일의남녀평등」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연사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디터·기젠교수. 문의 ⑱34·27.

컬러TV爆發

코드빼채…人命피해 없어

10일 낮12시15분께 서울恩平區應岩洞243의512 金弘敏씨(39·상업)집 안방에서 컬러TV 수상기가 폭발하는등 원인모를 불이나 4평짜리 안방내부를 반쯤 태우고15분만에 꺼졌다.

金씨의 부인 禹命숙씨(39)에의하면 쓰레기를버리고 돌아오는순간 집안에서 검은연기가 나고 유독가스가 뿜겨 『불이야』고 소리쳐 이웃주민 10여명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펑』하는 폭음이 들렸다는것.

禹씨가 안방방문을열자 검은연기와 함께 TV수상기와 커튼에 불이 붙어 있었다. 불이나면서 폭발을 일으킨 TV수상기는 화면이 여섯쪽으로 금이가있고 케이스 안쪽 브라운관이 터져 유리가 부서졌으며 다른 부분은 모두 녹아 내려 엉켜있었다. 이 TV는 지난 2월21일 金씨가 淸溪川7街 남성전기(주인 홍순창)에서 30만2천6백90원에 구입한 K사14인치짜리.

경찰은 金씨가족이 사고전날인 9일하오10시까지 TV를 본후 전기코드를 뽑고 잠자리에든뒤 한번도 TV를보지 않았다는 진술과 안테나선에 외부전류가 들어올가능성이 없으며 TV주변에 화재나 충격을줄 요인이 없었다는 사실로미루어 TV내부의 결함여부를 가리기 위해 치안본부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한편 K사측은 『자연적인 TV폭발이란 있을 수없다』고 말하고 과전류가 흐르거나 외부의충격, 외부로부터 불씨가주어졌을 때만 폭축이 가능하며 사고가 난 TV수상기는 전기코드가 빠져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TV결함으로 인한 폭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종교서관
535-1920
성경·교회및 일반서적
● 상가및 설교테이프
●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일반용)
월~토 오전10시30분~
714 BLOOR ST. W.

流星의 賦

<182>

李炳注 作
李友範 畫

『그것 좋은 생각이다』

『그럼 내일 아침밥 먹고 올께』

하고 홍계남이 일어섰다.

『어딜 가겠다는 건가. 여기서 같이 자지 그래』

하석이 만류했다.

『내게도 거처할 집이 생겼어』

『집이 생겼다구?』

『그렇다니까』

『어딘데. 누구의 집인데』

『이 다음에 그 사연을 말하지』

하고 홍계남이 하석의 집을 나섰다.

여름과 가을의 어으름에 서성거리는 계절의 황혼은 사람의 마음을 침착하게 한다. 홍계남은 궁동(宮洞)의 방향으로, 발을 떼어 놓으며 오늘 밤 전개될 화려한 장면을 상상했다. 가슴이 떨렸다.

이숙랑의 집은 굳게 대문을 잠근채 황혼속에 우뚝솟아 있었다. 계남은 동문(東門)에 다가서서 똑똑똑다섯번을 두드렸다.

(황혼고두문=黃昏敲誦門)

이란 말이 뇌리를 스쳤다. 황혼에 나는 누구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가 하는 기분이었다.

계남은 갑자기 시인(詩人)이 된듯한 기분이었다. 아직껏 있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어리둥절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된다는걸 계남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먼젓번에 보았던 중로(中老)의 사나이가 깊숙이 허리를 굽혀 절했다.

『도련님, 들어 오사이다』

계남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뜰엔 물이 뿌려져 있고 사랑방엔 환히 촛불이 밝혀져 있었다. 계남을 기다리고 있는 뜰이었고 공기였고 방이었고 집이었고 아늑한 밤이었다.

明暗 ②

『세상에 어디 그런 법이 있는가』

하고 홍계남이 상을 찌푸렸다. 송한필은 율곡선생의 친구일 뿐 아니라 서출(庶出)인 까닭으로 하석과 홍계남은 특히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터였다.

『나는 임금이 너무 했다고 생각해』

하석이 투덜댔다.

『율곡선생을 거간(巨奸)이라고 한 놈들(박근원, 송응개, 허봉)을 풀어준다고 하니 말이나 돼?』

그 일 때문에 전날 홍계남이 노수신을 해치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싶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참』

하고 하석이 물었다.

『심의겸이 탄핵 당한 사실 아는가』

『난 몰라, 언제 일인가』

『엊그저께 임금의 영이 내렸대』

『곤먹지게도 굴더니만 동인들이 결국 이긴 셈이군』

『그래서 계함(정철)과 졸재(拙齋)가 심히 불안한 모양이야』

졸재란 홍성민(洪聖民)을 말한다.

그때사 생각이 나서 계남이

『안성 집에 돌아가니 졸재선생으로부터 편지가 와 있더라』

며 성민의 편지를 꺼냈다.

그 편지를 읽더니 하석이

『이건 작년의 편지가 아닌가』

하고 놀랐다.

『집에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몰랐던거지. 내일 한번 찾아가 볼 참이야』

『나와 같이 갈까?』

『그렇게 해』

『성민선생을 찾는 김에 정철선생도 찾아보구』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왕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3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h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 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00	2501 Warden Ave.	298-9031